Vol.197

January
February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Special theme

Life's Calendar :
365일 건강 리포트 1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대상 - 인쇄사외보 부문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상 - 표지 부문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운 편지

새로 쓰는 2026년 건강 계획,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한 때입니다. 바뀐 달력 앞에서 다짐한 건강 계획이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을 여는 1+2월 호에서는 2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라는 주제로 한국인에게 위협적인 세 가지 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암, 폐암, 췌장암의 원인과 증상, 최신 치료법 등을 살펴 암을 예방하고 극복할 힘을 얻길 바랍니다.

Dynamic Hanyang에서는 ‘원더풀 한양인’과의 반가운 만남이 기다립니다. 의료원 밖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한양의 영웅들, 연구 및 대외 활동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한양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Hanyang Topic에서는 중증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심장·뇌·흉부 원스톱 핫라인’을 소개합니다. 365일 24시간 전문의 핫라인을 운영하며, 의료진 직통 번호로 연결돼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에 강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이 시기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믿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중증질환까지 책임감 있게 살피며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두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건강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윤호주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호 주



SPECIA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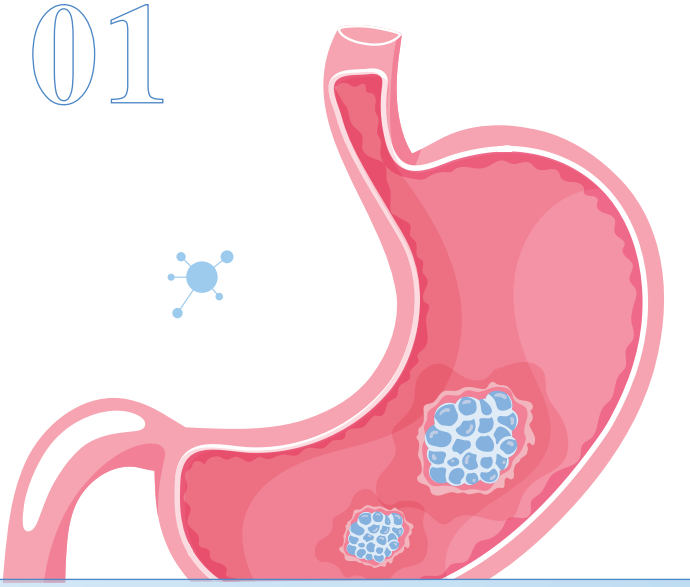
Life's Calendar : 365일 건강 리포트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한국인에게 위협적인 세 가지 암, 즉 위암, 폐암, 췌장암의
원인부터 최신 연구 동향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2026년의 문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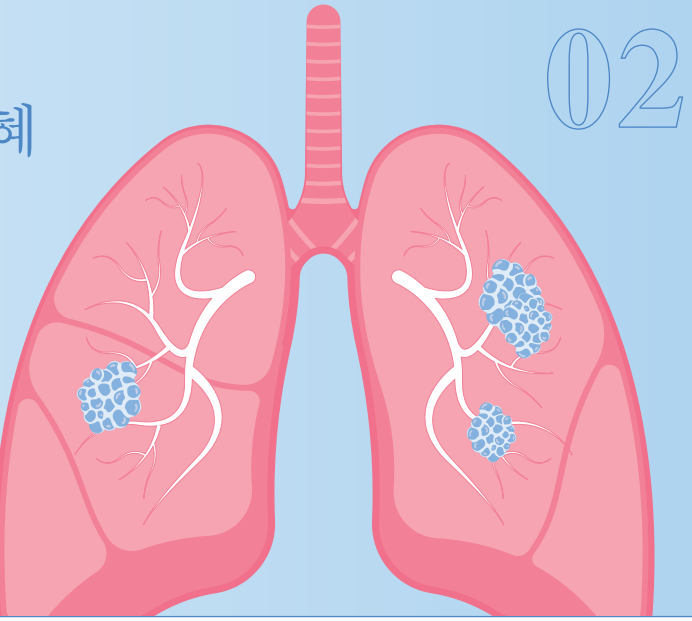
01

위암의 조기발견,
올라가는 완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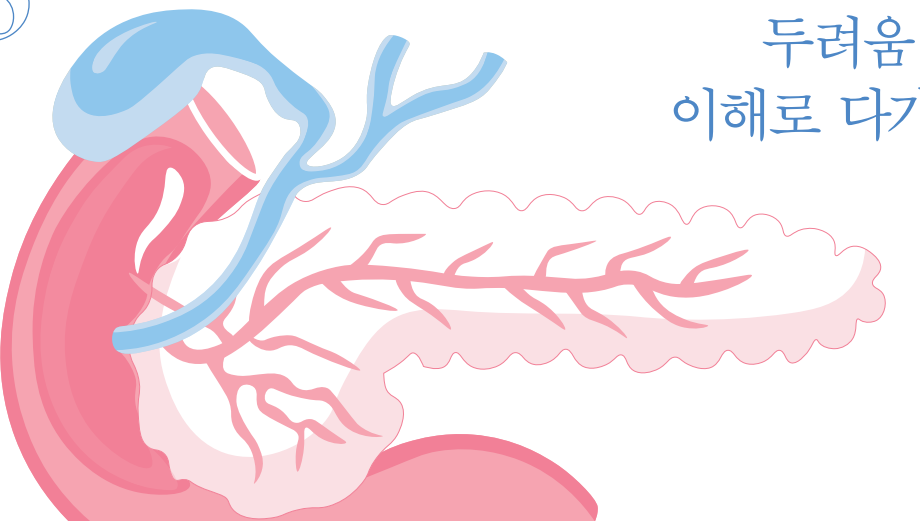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을 극복하는 지혜

02



03

췌장암,
두려움 대신
이해로 다가가기







contents

Vol. 197 2026 January / February

02 **즐거운 편지** 새로 쓰는 2026년 건강 계획,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임영효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12 **Dynamic Hanyang** 한양의 이름을 드높인 그대
2025 원더풀 한양인

16 **Life's Calendar Ⅰ**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18 **Special theme ❶** 위암의 조기 발견, 올라가는 완치율

20 **Special theme ❷**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을 극복하는 지혜

22 **Special theme ❸** 췌장암, 두려움 대신 이해로 다가가기

24 **Hanyang Topic**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ON'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 운영

30 **주목할 만한 연구** 정형외과 골절 수술의 난제 '임플란트 감염', 나노 코팅 기술로 길을 찾다

3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한 배우 진태현의 갑상선암

34 **Dr. Movie**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36 **예술과 의술의 만남** 독창적인 기법을 탄생시킨 지독한 고통

38 **고마운 당신에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윤여준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40 **언론 속 한양인**

42 **Hanyang News**

44 **Hihy 건강저장소**

46 **발전기금**

48 **이달의 이슈**

49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6년 1월 13일 통권 197호 **발행인** 윤호주 **편집인** 고주연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 정유미 사진. 안용길

실용과 이해의 길을 걷는 의사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한국인 대부분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개인을 상대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분위기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간을 절대적인 가치, 즉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전환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로 생각한다.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길

박선철 교수를 의사의 길로 이끈 동력은 9할이 드라마였다.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자연과학에 심취해 의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그는 TV 드라마 〈종합병원〉을 시청한 뒤로 뭐에 홀린 듯 의대에 지원했다. 이후 녹록치 않은 의대 생활을 겪으면서 가끔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의학에서 환원주의는 질병이나 생명 현상, 인체 구조를 원자, 분자, 세포, 조직 등 더 작은 단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는 환원주의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정신의학의 관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진로로 정했다. 환자를 면담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 일하면서 그는 오늘날 정신의학이 단순화나 편의성에 치우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과 맞닥뜨렸다. 예를 들어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장애 분류 매뉴얼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환자 개인마다 차별화되는 고유성까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DSM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거의 표준처럼 사용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우울장애 경우에는 총 9개 증상항목이 있는데, 이들 중 5개 이상에 해당되면서 '기분 저하'와 '흥미 감소' 중 하나를 나타낼 때 진단합니다. 하지만 같은 우울장애 환자라도 개인마다 임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반되는 증상과 질환들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우울장애를 진단기준만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근할 경우 치료의 한계에 봉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유럽에서 출발한 정신의학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정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간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다.

본질과 실용의 갈림길에서

박선철 교수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의대 협력병원인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의 도튼 패밀리 양극성장애 치료혁신센터(Dauten Family Center for Bipolar Treatment Innovation)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앤드류 니렌버그 교수와 마수드 카말리 교수 등 기분장애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들과 정신질환 진단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기분장애 증상의 네트워크 분석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평소 생각했던 정신질환 진단단위의 본질과 현황, DSM의 문제점에 대해 미국 의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앓던 이가 빠지듯 오래된 의구심이 사라졌다.

"DSM처럼 간단하게 도식화된 체계가 있었기에 정신의학이나 정신과 약물치료가 오늘날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보다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주의 태도만 고수했다면 지금처럼 대중화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는 현대 정신의학이 그러하듯,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서 특징을 식별하고 개념을 단순화해 과감히 덜어내는 실용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배움을 얻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곧장 빼곡하게 꽂혀 있는 책장의 책들부터 덜어냈다. 책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줄이려고 애썼다.





연구와 학술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

그는 임상 현장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질문을 연구로 확장해 나갔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정신질환 진단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과 기분장애 증상의 네트워크 분석 논의는 풀브라이트 교수 연구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Visiting Scholar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1946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J. 윌리엄 풀브라이트가 제안한 법안에 기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학문적 성취와 잠재력을 공인 받는 명예로 여겨진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학문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풀브라이트 의원의 이상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박선철 교수는, 해외연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풀브라이트 동문들과 교류를 통해 연구활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외연수를 통해 개인적인 의구심은 사라졌지만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요즘 박선철 교수는 DS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울장애의 개인맞춤형 치료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진단이 아닌 증상 중심의 항우울제 선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울장애 환자들의 우울증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전공의 및 의대생을 위한 교과서 저술은 물론, 일반인들의 마음건강을 돕는 대중서 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를 야스퍼스의 「정신병리학 총론」과 에밀 크래펠린의 「정신의학」 한글번역 감수에 참여한 것은 '한국의 정신의학 토대를 건실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료와 교육에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된 2019년. 박선철 교수는 '21세기 북한의 정신의학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간해 큰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미국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린 것은 물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에서는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정신의학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쉽지 않지만 그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 치우치지 않은 관점에서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정신의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은 해당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나 보건 시스템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동시에 오늘날 정신의학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가 의사인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면 그것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 때문이다. 진료할 때는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가 겪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학문적으로는 정신의학의 고전 속에 담긴 사유의 전통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정신의학의 대중화나 실용화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환자를 대할 때의 진지한

태도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내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온 역사가 있고,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요. 환자를 진단 기준만을 적용해서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더 이상 이해하려 들지 않는 오류만큼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 경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란 쉽지 않다. 기구한 사연을 여러 차례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흘려 듣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래서 그는 점심시간마다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토닥인다.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과 「마태수난곡」, 베토벤의 「비창소나타」와 「합창교향곡」 등을 들으면 자신에게 지치고 부담되고 힘든 여러 일들이 어쩌면 매우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도 의사로서 제가 지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단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진료와 연구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주려고도 않고 주지 않으려고도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박선철 교수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도 같다. '주려고도 하지 않고 주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자세 말이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멋진 말을 하면 환자에게 통찰이 생겨서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러긴 어렵겠더라고요. 환자가 어떤 통찰을 갖게 되는 순간은 오롯이 환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환자들에게 되도록 적게 말하려 노력한다. 짧은 진료시간 동안 환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주되, 통찰을 갖고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은 오롯이 환자가 맞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주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세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박선철 교수는 절대적인 가치로, 즉 있는 그대로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 애쓴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에 기대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인간이란 다 다른 듯 보이지만 서로 연결된 존재라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곧 타인에 대한 이해임을 어렴풋이 느끼곤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걷는 길이 때론 고되긴 해도 많은 선배들이 그래왔듯 묵묵히 걸음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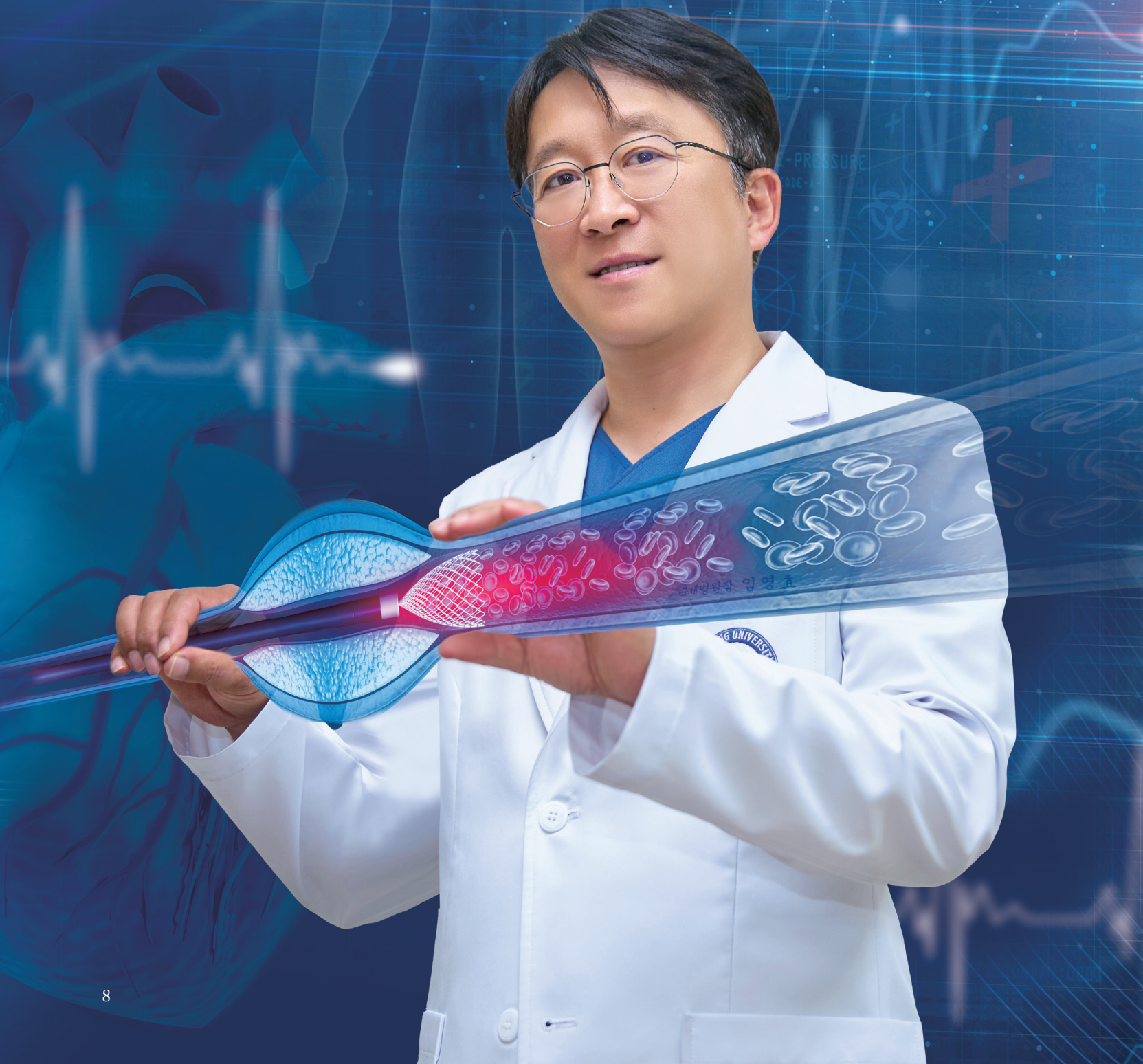
> "어떻게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환자의 몫이기에, '주려고도 하지 않고 주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세로 환자를 진료합니다"



글. 정유미 사진. 안용길

더 나은 세상을 여는 협력 융합연구의 새로운 지평

임영효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⑲

세상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연구들 중에 의미가 없는 연구는 없겠지만, 보다 효능성이 높은 연구는 있다. 임영효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치료 수준을 높이거나 합병증을 줄이거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능성 높은' 연구에 집중한다. 환자 진료와 의대 강의, 심혈관 중재시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공과대학 교수들과 틈틈이 만나 열심히 소통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임상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공학자의 기술 언어로 바꾸는 '하이브리드 연구'를 통해 효능성 높은 솔루션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Q. 교수님께서는 심장내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일구어오셨습니다. 초기에 진행하셨던 연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전임의 시절에 처음으로 동물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심근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한 편인데,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당뇨병 모델인 OLETF(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쥐와 정상 대조군인 LETO(Long-evans Tokushima Otsuka) 쥐를 이용해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가 당뇨병성 심근병증의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CSF가 당뇨병성 심근병증을 가진 OLETF 쥐에서, 특히 심근 섬유화를 중심으로 이완기 기능장애와 형태학적 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지요. 2011년 발표한 이 연구의 논문 '당뇨병성 심근병증에서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의 치료효과 기전 규명(Action mechanism of therapeutic effects of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on diabetic cardiomyopathy)'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고,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공과대학과 협력하신 첫 번째 융합연구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계기로 함께 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계셨던 조성호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레이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세요. '사람을 대상으로 레이더를 쏘아보니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다'면서 제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 신호가 심전도일 것이라고 기대하셨지만, 확인해보니 심장박동과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전도가 아님을 알고 실망하신 그분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게다가 레이더는 인체에 무해한 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연구 과제에 저와 조성호 전 교수님, 이비인후과 조석현 교수님,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 연구재단으로부터 5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과제였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이 함께 따낸 최초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임펄스 라디오 초광대역(IR-UWB)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심박수 모니터(A novel non-contact heart rate monitor using impulse-radio ultra-wideband (IR-UWB) radar technology)'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출간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임펄스 라디오 초광대역(Impulse-radio Ultra-wideband, IR-UWB) 레이더가 비접촉 방식으로 심박수와 심장 리듬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밝혀냈지요. 당시 유럽심장학회(ESC Congress 2018)에서 이 내용을 발표해 베스트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대 교수가 심장학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Q. 그 논문 이후에 관련 논문이 여러 편 출간된 것으로 아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논문을 공개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비접촉'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접촉 모니터링이 가능한 레이더의 장점이 부각됐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하면 환자들 몸에 직접 뭔가를 붙이지 않아도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면 중 모니터링이나, 신생아 모니터링,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 모니터링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낙상 같은 경우 CCTV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큽니다. 과제에 참가했던 저와 교수님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후속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Q.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정예환 교수 연구팀과도 협력해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알려주세요.

대동맥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하는데,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으로 엔도리크(Endoleak)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도리크란 스텐트 그라프트 주변으로 혈액이 새어 대동맥류 주머니에 혈류가 재유입되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엔도리크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CT나 초음파를 촬영해야 하는데, 조영제의 독성을 줄이면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엔도리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정예환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근거리 통신이고 의료기기 연구 개발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융합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예환 교수님 연구팀과 논의를 거쳐,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후 발생하는 혈액 누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초박막 무선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라프트 바깥의 혈액 흐름(엔도리크)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기존의 스텐트 그라프트에 부착해 혈액 유입 여부를 신체 외부에서 전기 신호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초박막 소재로 만들어진 센서는 스텐트가 접히거나 펴지더라도 손상되지 않으며, 복부 위에 외부 리더기를 가볍게 대는 것으로 센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가 병원 방문 없이 쉽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대동맥류 시술 치료 후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도리크를 조기에 진단해 파열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추가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내 동맥류 복원술 후 혈액 누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이식형 센서(A wireless, implantable sensor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blood leakage afte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한 이 연구는 학술지 『Science Advance』에 실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Q. 의료 연구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왜 중요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일상에서 환자를 살피다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를 생각하다보면 막막해지곤 하는데, 공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만나면 방법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학 연구가 입장에서는 의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 분야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대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들 중에는 의료 현장에서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의료기기의 최종 사용자는 저 같은 의료진이기에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정확히 알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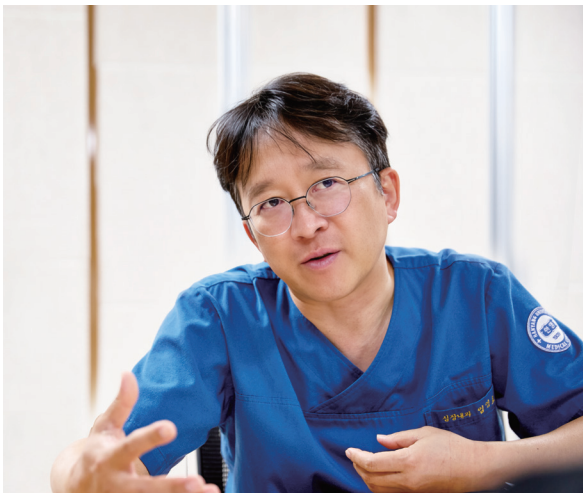
이런 이유에서 융합연구를 할 때는 연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좋은 연구이지만 쓸모는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한양대학교는 병원, 의대, 공대가 가까이 위치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기 쉽습니다. 의학과 공학의 융합연구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양대학교병원에 여러 융합연구팀이 설립돼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송시몬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MRI 관련 연구를 함께 할 파트너를 찾으시길래 '우리 병원 영상의학과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 같이 식사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들려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면 우리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한, 실효성 높은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 바쁘신 중에도 꾸준히 연구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상 연구는 환자를 모으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분석과 검증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어렵사리 결과를 도출했더라도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의학 교과서에 실리려면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모여야 하지요. 오늘 시작한 연구의 답이 10년 뒤 세상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선배들도 모두 같은 여정을 거치며 연구했고, 그 결과들이 모여 교과서가 되었으며, 덕분에 저 같은 의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쌓이고 모여서 의학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그냥 즐겁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Q. 연구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논문을 잘 쓰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문은 한 사람이 평생에 한 편 쓰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을 모으고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대규모 연구 과제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저 혼자서 연구를 짊어지고 가려는 생각이 제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업적임을 주장하는 순간, 계속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저와 공동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도 줄어들 테지요. 특히 욕심이 많으면 융합연구가 원활하게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환자 진료와 강의에 집중하면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효 교수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정신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뿐. 힘들다거나 지친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생각들은 그냥 스쳐지나가게 놔두면 그만이다. 그러다보면 오늘 시작한 연구가 미래의 어느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실현해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는다.

글. 편집실 사진. 안용길

한양의 이름을 드높인 그대 2025 원더풀 한양인

지난 2025년에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주인공들은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다했다. 2025년을 빛낸 한양의 영웅이자 어벤져스이자 스페셜리스트인 이들을 함께 만나보자.





한양을 빛낸 얼굴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주인공들은 2025년에도 눈부시게 활약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병원 안과 밖이 없었고, 의료 발전을 향해 불태운 열정은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한양을 빛낸 수많은 주인공들 가운데 아쉽지만 여섯 명만 콕 찍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셔틀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을 살린 이정애 간호사, 사우나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한 황승연 방사선사, 마포대교에서 자살 시도자를 붙들어 생명을 지킨 정선아 사례관리사. 이들은 남다른 의지와 용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한양의 의인'이다. 2025년 국내 주요 학회에서 4관왕을 달성한 한건희 교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노력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호진 교수, 마약성 진통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나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원영웅 교수. 이들은 의료 발전을 위해 열정을 태운 '한양의 열정가'다. 누구보다 뜻 깊은 2025년을 보낸 여섯 명의 특별한 소감을 들어보자.



심폐소생술로 셔틀버스 승객을 구한 의인

이정애 한양대학교병원 신속대응센터 간호사

이정애 간호사는 지난해 4월 출근길 셔틀버스에서 안색이 창백한 60대 여성을 발견하고는 옆자리에 앉았고,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이 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그는 "그동안 쌓은 임상 경험과 현재 업무가 제게 큰 용기를 주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간호사로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10여 년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한 그는 현재 신속대응센터에서 일반병동 환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고 즉각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온탕에 쓰러진 할머니를 90여 회 가슴압박으로 살려

황승연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MRI실 방사선사

지난 봄, 딸과 함께 사우나를 찾았다가 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둥둥 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황승연 방사선사는 즉시 달려가 할머니를 꺼낸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명을 구했다. 이처럼 주저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기적으로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이었다고. 그는 "침착하게 호흡을 확인하고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한 뒤 119 신고를 요청한 다음 가슴압박을 시행했다"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의 경험은 그에게 의료인으로서 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자살 시도 현장에서 온몸으로 생명을 지키다

정선아 한양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사

지난해 여름, 한밤중에 친구와 산책하던 정선아 사례관리사는 두 여성이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처음에는 한강 야경을 구경하나 싶었는데 발을 난간에 올리는 것을 보고는 즉시 뛰어가 끌어내렸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흥분한 두 여성을 온몸으로 붙들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4년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근무하며 자살 시도나 자해로 내원한 환자의 상담 등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그는 "생명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외쳤다.



2025년은 나의 해, 국내 주요 학회 4관왕 달성

한건희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한건희 교수는 올해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38차 학술대회 '한미약품 학술상', 대한신경외과학회 제43차 춘계학술대회 'Top4 Abstract Award(혈관 부문 최우수 연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ASCENT 2025 '대구굿모닝병원 우수연제상',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30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Free paper I (Aneurysm) 부문 우수연제상'을 싹쓸이해 국내 주요 학회 4관왕을 달성했다. 그는 "제게 연구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환자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더 확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연구를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의 길을 내다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호진 교수는 그동안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지원 체계 마련에 힘써왔다. 치매와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연구는 물론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진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민해왔다"면서 "이번 표창은 정책적 접근이 실제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치매 관련 정책이 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 매진 중이다.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나서다

원영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원영웅 교수는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산하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총무위원장으로 암성통증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근거 기반의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하는 한편, 규제와 환자 치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논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 교수는 "마약성 진통제는 암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신체적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평가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다"라며 "환자 중심의 통증 관리와 안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암 치료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암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며, 치료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됐다. 세계 암의 날을 맞아 한국인에게 위협적인 세 가지 암, 위암, 폐암, 췌장암에 대한 건강 정보와 함께 최신 치료 기법들을 살펴본다.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등록통계(2022)

위암

(2018-2022)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 90% 이상

약 78%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

발생자 수 (2022)

29,487명



5년 생존율

2001-2005 58.0%

2018-2022 78.4%

폐암

(2024)

1위
사망률

19,401명
사망자수

21.8%
전체 암사망자 중
폐암사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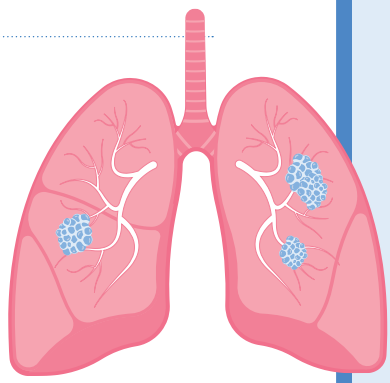
남자 발생자 수 (2022)
21,646명

여자 발생자 수 (2022)
10,667명

5년 생존율

2001
-2005
16.6%

2018-2022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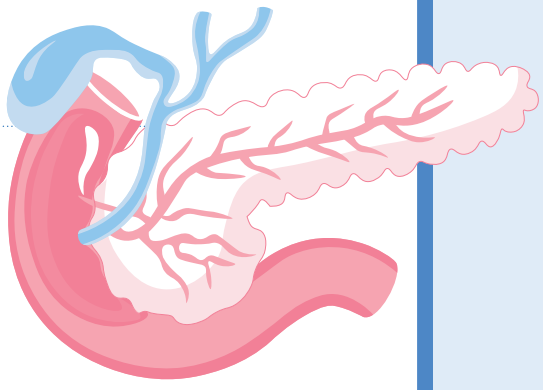
췌장암

(2018-2022)

췌장암의
조기 발견율
13.8%

45.5%
전체암의
조기 발견율

발생자 수 (2022)
9,780명



5년 생존율 (2018-2022)

췌장암의
5년 생존율
16.5%

전체암의 5년 생존율
72.9%

01

February

4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세계 암의 날'

위암의 조기발견, 올라가는 완치율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로, 과거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 특히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만큼, 예방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위암이 흔한 이유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는 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과 연관된다. 이 세균은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로 감염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식습관과 관련이 깊다. 한국인의 식단에는 짠 음식, 발효 음식, 그리고 가공육의 섭취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김치, 젓갈, 장류 등은 건강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조기 발견이 완치율을 높이는 열쇠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하여 발견이 어렵다.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 검진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암을 발견하면 치료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은 병변도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조기 위암이 발견되면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이라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 없이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글. **이상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위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위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암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 치료

위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이 주로 사용되며, 이 방법은 암 조직을 포함한 점막과 점막하층만 제거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병행된다. 최근에는 면역치료와 표적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도입되어 치료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로봇 수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로봇 수술은 정밀도가 높아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

의학 연구의 발전은 위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적, 분자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면역치료는 위암 치료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역치료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존 치료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최신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위암 예방을 위한 실천

위암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먼저, 짠 음식과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흡연과 음주는 위암 발생률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 역시 예방에 필수적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답이다

위암은 한국에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위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최신 치료법과 연구 동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02

February

4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세계 암의 날'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을 극복하는 지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한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전체 암환자 발생률은 522.7명이고, 폐암의 발생률은 11.5%로 갑상선암(12.0%), 대장암(11.8%)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폐암의 사망률은 21.8%로 2위인 간암(11.7%)에 비해 많이 높은 암이다. 즉, 폐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높아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약 75%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흔히 사람들이 폐암이 생기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고,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흉부CT 검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폐의 결절 등 의심되는 병변이 우연히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흉부CT에서 유리를 갈아 놓은 듯 뿌옇게 보이는 폐의 음영(간유리음영)이 발견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우연히 발견된 간유리음영을 주소로 외래를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간유리음영이 관찰된 환자를 수술한 결과, 폐암의 전 단계에 해당하거나 초기 폐암으로 밝혀지는 등 폐암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모든 간유리음영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수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하면서 크기나 모양, 음영의 농도 변화 등을 지켜보는데, 이때 크기가 작고,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경우 장기간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흡연이 가장 큰 적

폐암의 위험인자는 대표적으로 흡연을 꼽을 수 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상대적인 위험도가 약 15~80배 가량

글. **송승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폐암은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지만, 일찍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 받는다면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질병이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폐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흡연 등을 피해야 한다.

증가한다.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흡연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비흡연자의 경우도 폐암의 발생 위험도가 많게는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 비소 등 직업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물질들도 폐암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자가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수년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등의 방사성물질도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대기중이나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분진도 폐암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폐암의 발생은 대부분 후천적인 유전이 변이로 인해 생기게 되므로,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생 위험도가 약 2~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X-ray나 CT 등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매우 미미하여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

사람의 폐는 우측에 3엽(우상엽·우중엽·우하엽), 좌측에 2엽(좌상엽·좌하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으로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폐암이 발생한 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이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를 통해 크기가 작고, 일정한 기준에 맞는 간유리음영 등에 대해서는 폐엽절제술보다 작은 범위의 수술(구획절제술)로도 치료 효과가 낮지 않음을 발표하여, 현재는 경우에 따라 구획절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구획절제술의 경우 폐엽절제술에 비해 폐를 절제하는 범위가 작으므로 수술 후 남아있는 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 폐기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초기폐암에서 구획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서 흉강경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기존에 가슴을 절개하는 개흉술에 비해 통증이나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폐암의 수술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중 의심부위 주변부만 절제하여 동결절편을 통해 폐암 여부를 진단하고 폐암일 경우 이어서 폐암 수술을 마무리하는 등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의료진과 상의하여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암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전이 등 진행이 빠른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고령자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률 1위 암은 폐암이고, 기대수명인 약 83.5세까지 생존하였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흔히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나이 등을 이유로 전신마취나 수술, 이후의 합병증 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기능을 비롯하여 기존의 건강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 자체가 수술적 치료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암에서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것은 정설이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의 비약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수술 후 치료의 성적도 좋아지면서 폐암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폐암에서의 면역항암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시작으로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수술 전 면역항암제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진행을 늦춰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를 수술까지 이르게 하거나, 수술 후 투여하여 장기 재발률을 줄이는 등 폐암 치료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효과가 기대된다.

폐암은 높은 발생률과 높은 사망률을 가진 질병이지만,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흉부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폐암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03

February

4

희망의 의학, 암을 넘어

'세계 암의 날'

췌장암, 두려움 대신 이해로 다가가기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췌장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이 굳어진다. "발견되면 끝이라던데요?" "방법이 없는 암 아니에요?" 같은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췌장암은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작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 혹은 위험 신호가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 알려진 것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훨씬 많다. 사실 췌장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와 신호 안에서 충분히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췌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췌장은 위 뒤편, 등 가까이에 붙어 있는 길고 납작한 장기다. 겉으로 만져지지 않고 내부 깊은 곳에 자리해 조용히 일을 한다.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문제는 이 조용함이 병이 생길 때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췌장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거의 없다. 실제로 미국·영국 설문에서 일반인의 80% 이상이 췌장암의 증상을 한 가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고,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되는 것이다.

신호는 분명히 있다! 단, 놓치기 쉽다

췌장암은 소리 없이 자라지만, 완전히 '증상 없는 암'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이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보이는 비특이적 증상이라 스스로 눈치채기 어렵다. 가장 흔한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식후 상복부 통증이 등까지 이어질 때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식욕이 감소할 때
-피부나 눈,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될 때

특히 새로 발생한 당뇨는 최근 연구에서 중요한 초기 단서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글. **주현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췌장은 우리 몸 깊숙이 위치해 조용히 일하는 장기로, 암이 생겨도 드러나는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신호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췌장암은 대비가 가능한 암이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해를 중심에 놓고서, 췌장암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누군가에게는 더 가까운 암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췌장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다.

-50세 이상
-흡연
-당뇨병 보유자
-만성췌장염 환자
-가족 중 췌장암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췌장은 '멀리 있는 장기'가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할 장기'가 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진단 기술

과거에는 췌장암을 찾는 일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은 종양이 작을 때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해졌고, 혈액에서 암의 DNA 조각을 분석하는 순환 종양 DNA 검사, 단백질 패턴 기반 조기 진단 기술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췌장암은 여전히 쉽지 않은 암이지만, 예전처럼 손 놓을 수밖에 없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하고 정교해진 치료

췌장암은 '수술이 거의 불가능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치료는 훨씬 더 발전했다. 전이가 없는 경우 종양을 줄인 뒤 수술 기회를 만드는 선행 항암치료, 정위 방사선치료 및 중입자치료, 복잡한 췌장 수술을 정교하게 수행하는 로봇·하이브리드 수술, 암의 유전적 특징에 맞춘 특정 환자에게 효과적인 면역항암치료까지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 치료법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지식을 이길 수 없다

췌장암은 '겁나는 암'이지만 '알 수 없는 암'은 아니다. 막연한 공포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정확한 정보는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할 힘을 준다. 작은 통증 하나, 갑작스런 체중 변화, 혈당의 이상 등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췌장암을 앞서가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위험요인을 알고, 필요할 때 검사를 받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췌장은 보이지 않는 장기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인식만큼은 꼭 보이길 바란다.



글. 편집실 사진. 안용길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ON'

한양대학교병원 심장 · 뇌 · 흉부 전용 핫라인 운영

**한양대학교병원이 심장·뇌·흉부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를 위한 전용 핫라인 가동에 나섰다.
의료진 전용인 핫라인을 이용하면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즉시 응답해 중증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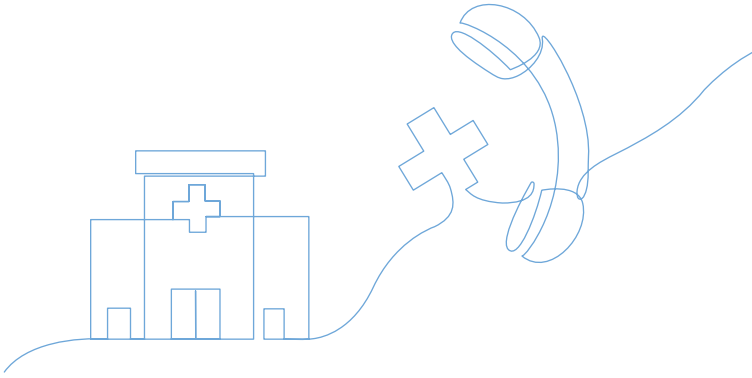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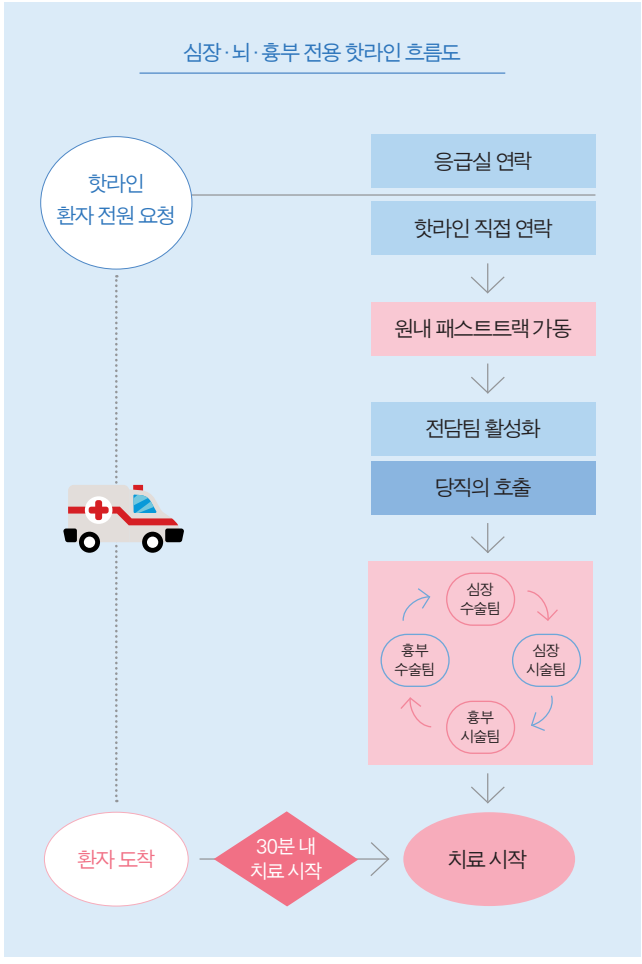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 기반 마련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개편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안착시키고 있다. 특히 동남권역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차 병원들과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450여 개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을 본격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실 이전에도 응급을 요하는 중증 환자의 전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의 개인 휴대폰을 상시로 열어둔 진료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통합 직통 연락처를 개설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고객서비스혁신센터장이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인 박정환 센터장은 전용 핫라인의 도입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30분 내로 치료 시작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을 운영하는 진료과는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이며,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진료과를 선택해 전문의와 통화할 수 있다. 전문의가 직접 환자 정보를 전달받아 전원 과정을 단축하고, 환자가 도착하면 30분 이내로 치료가 시작돼 중증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의 주요 진료 분야는 다음과 같다.

심장내과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시술, 대동맥판막협착증, 부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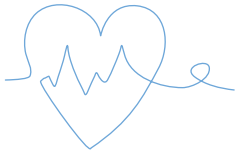
신경과 뇌졸중, 어지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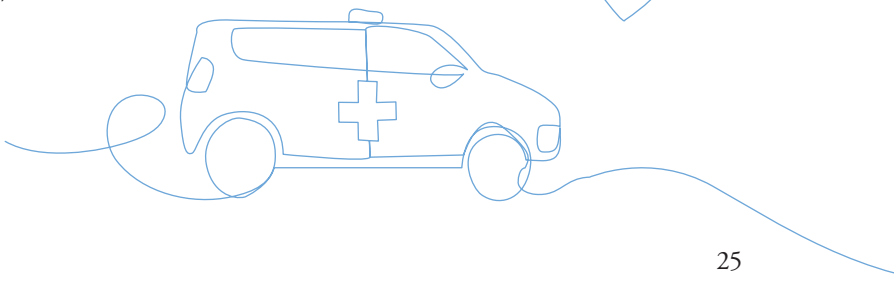
신경외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뇌혈관, 두부외상

심장혈관흉부외과

일반 흉부질환 폐암, 기흉, 종격동 종양, 식도암, 흉수, ARDS

심장질환 흉복부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ECMO, 폐색전증





심장



임영효
심장내과 교수

진료 분야 |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성인 선천성 심질환



김우현
심장내과 교수

진료 분야 |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동맥), 대동맥질환,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시술



박수정
심장내과 교수

진료 분야 |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가장 먼저 24시간 핫라인 가동에 나선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장효준 교수는 "급성 대동맥박리, 관상동맥, 대량 폐색전증, 흉부 종양, 늑골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의 중증 환자들이 핫라인을 통해 본원에 도착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필요한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핫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끊김 없는 진료, 네트워크 협력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을 거절해 끝내 사망하는 이른 바 '뺑뺑이 사망'이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은 1·2차 의료기관과 한양대학교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권역 중증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과 연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시간이 생명과도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될수록 예후는 급격히 악화된다. 얼마나 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난도 수술이나 중환자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대기시간 없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경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옮겨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스탠드삽입술)을 시행 중인 심장내과 김우현, 박수정 교수



뇌혈관조영술을 준비 중인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

전원은 최선의 치료를 위한 연결통로

한양대학교병원은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연속성 있는 치료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에는 '심혈관 중증진료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진료협력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심혈관 중증진료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심혈관 분야 및 흉부 분야 임상 경험과 협력 진료 사례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번째 강의에 나선 박수정 심장내과 교수는 심장내과의 심부전·영상의학팀과 심혈관 중재시술팀을 소개하고, 전용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뢰 받은 첫 환자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장효준 교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는 세부 분야와 함께 핫라인을 통해 의뢰 받은 환자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협력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간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온라인을 통한 정기 컨퍼런스로 환자 흉부CT 리뷰와 수술 환자 치료 방향 및 경과 논의, 협력병원 원내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 출장 진료 또는 원격 자문 시범사업으로 수술 필요 여부 판단 및 환자 상담, 공동 연구 레지스트리 구축 등이다. 세 번째로 나선 김현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네트워크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질환별 전원 기준의 표준화,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교육 및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김영서
신경과 교수

진료 분야 | 뇌졸중, 청년기 유전성 뇌졸중, 경동맥협착,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진료 분야 |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홍승우
신경외과 교수

진료 분야 | 정위기능 신경외과, 안면 떨림, 수전증, 파킨슨병, 신경병증성 통증, 뇌전증, 노발리스 방사선수술, 소아신경외과, 신경조절(D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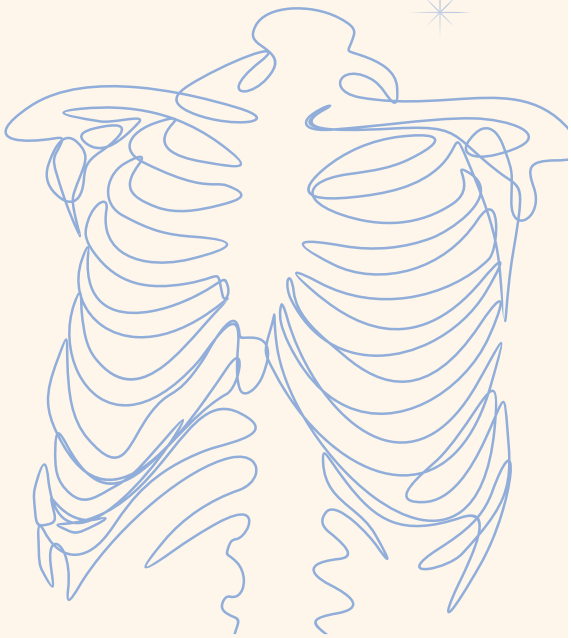
정수
신경과 교수

진료 분야 | 뇌졸중(뇌혈관질환), 두통



한건희
신경외과 교수

진료 분야 |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동정맥루, 모야모야병, 두부외상



흉부



장효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진료 분야 | 폐암, 종격동 종양, 기흉,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김현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진료 분야 |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동정맥루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중인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수 교수

중증 질환 치료에 강한 한양대학교병원

전용 핫라인을 도입한 뒤로 2차 진료협력병원들의 전원 의뢰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정환 센터장은 "핫라인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진료협력팀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진료협력팀을 통해 정말 많은 진료협력병원에서 환자들의 전원을 의뢰해오고 있다. 심장·뇌·흉부 관련 환자도 있지만, 타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진료협력병원들과 저희 병원 간에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협력과 연계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심장·뇌·흉부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중증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질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도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환자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선의 치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네트워크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Interview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

박정환 고객서비스혁신센터장·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심장·뇌·흉부 전용 핫라인’의 도입 배경에는 한양대학교병원 고객서비스혁신센터 진료협력팀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있다. 관련 진료 분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양대학교병원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박정환 센터장은 진료협력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간 협력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한양대학교병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협력이 잘 되는 부분은 강화하고, 미숙한 부분은 보완해 시스템화하는 것이 현재 진료협력팀에게 주어진 숙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하드웨어는 기본이고 소프트웨어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와 간호사 등 구성원들이 환자 치료에 적극적이고 소통이 원활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증 환자 치료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센터장은 현재 심장·뇌·흉부 전용으로 운영 중인 중증 환자 핫라인을 앞으로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진료협력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의 전원 의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다.

“이번 핫라인 도입이 ‘한양대학교병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과 소통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한양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응급 대응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구성원과 소통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면서 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미래가 다져질 것이다.



지난 12월 1일 진행한 ‘심혈관 중증진료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주목할 만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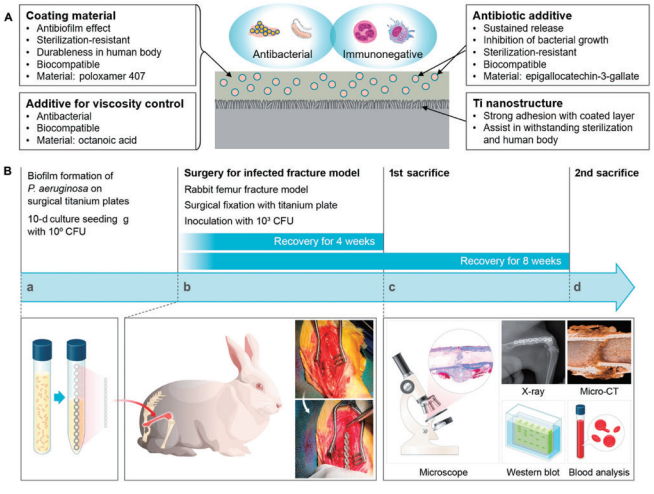
연구자. **김성재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골절 수술의 난제 '임플란트 감염', 나노 코팅 기술로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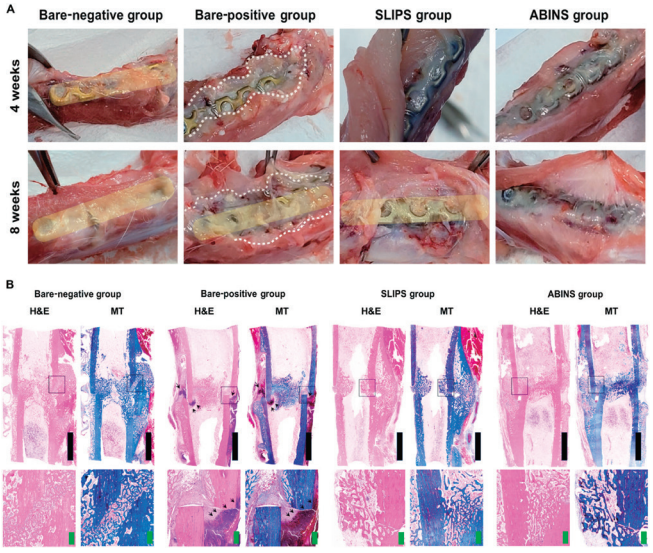
"ABINS 코팅 플레이트는 낮은 세포 독성, 강력한 항균 효과, 바이오필름 형성에 대한 높은 저항성, 그리고 토끼 대퇴골 골절 모델에서 최소한의 면역반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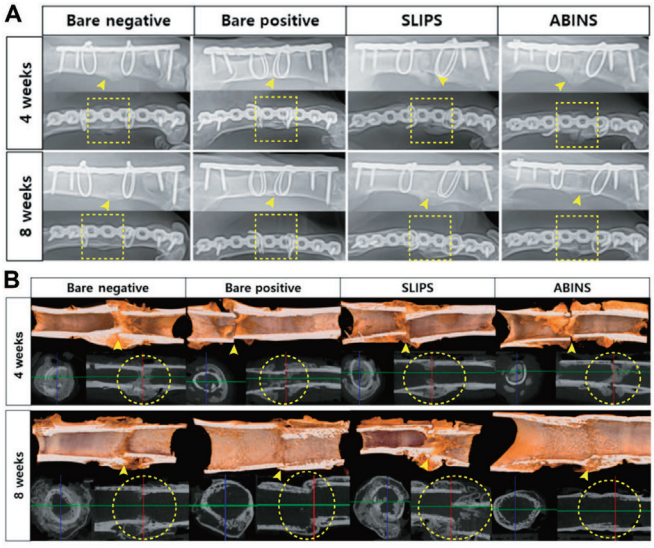
국제 학술지 『생체재료학회지』 2024년 28권에 게재된 'Antibacterial Immunonegative Coating with Biocompatible Materials on a Nanostructured Titanium Plate for Orthopedic Bone Fracture Surgery' 중에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는 바이오필름과 다양한 항균 코팅 기술의 한계

현대 정형외과에서 골절 치료를 위해 티타늄 합금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수술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임플란트 주위에 세균이 증식하여 형성되는 바이오필름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일단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항생제 침투를 막고 일반적인 세척액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 결국 뼈가 붙기도 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심한 경우 사지 절단,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한다. 특히 임플란트 감염 환자의 치료비는 비감염 환자보다 약 7배나 높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항균 코팅 기술을 연구해왔으나, 대부분의 기술은 인체에 사용하기에는 독성이 있거나 실제 수술 전 필수 과정인 고온 가압 증기 멸균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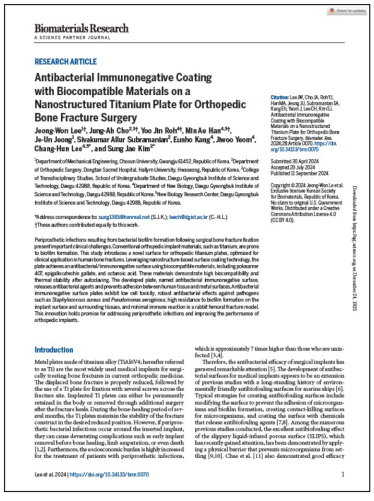


세균의 부착과 생존을 억제하고,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코팅 물질

본 연구팀은 실제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생체 적합 물질만을 활용하여, 멸균 공정 후에도 항균 효과가 유지되는 새로운 나노 구조 코팅 기술인 ABINS(Antibacterial Immunonegative Surface)를 개발했다. ABINS 기술은 단순히 약물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티타늄 표면 자체를 공학적으로 설계하여, 플레이트 표면에 10~20nm 크기의 미세한 나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코팅제가 금속 표면에 강력하게 결합하도록 했다. 여기에 항부착 효과가 뛰어난 폴록사머 407을 기반으로 점도를 조절하고 항균력을 높이는 옥탄산, 그리고 녹차 추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세균 억제 효과를 내는 EGCG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여 3중 복합 코팅층을 완성했다. 본 연구팀은 ABINS 코팅 플레이트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녹농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ABINS 코팅은 세균의 부착과 바이오필름 형성을 완벽에 가깝게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끼를 이용한 대퇴골 골절 동물 실험에서 세균을 직접 주입한 가혹한 환경에서도 ABINS 코팅군은 염증이나 고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조직 검사와 웨스턴 블롯 분석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정상 수술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면역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항균 코팅이 뼈가 붙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아 8주 후 모든 실험군에서 성공적인 골 재생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여 실제 임상 환경을 완벽히 고려한 항균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대량 생산에 유리한 간단한 공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산업적 적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기술이 실제 수술 현장에 도입된다면 골절 환자들이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markabl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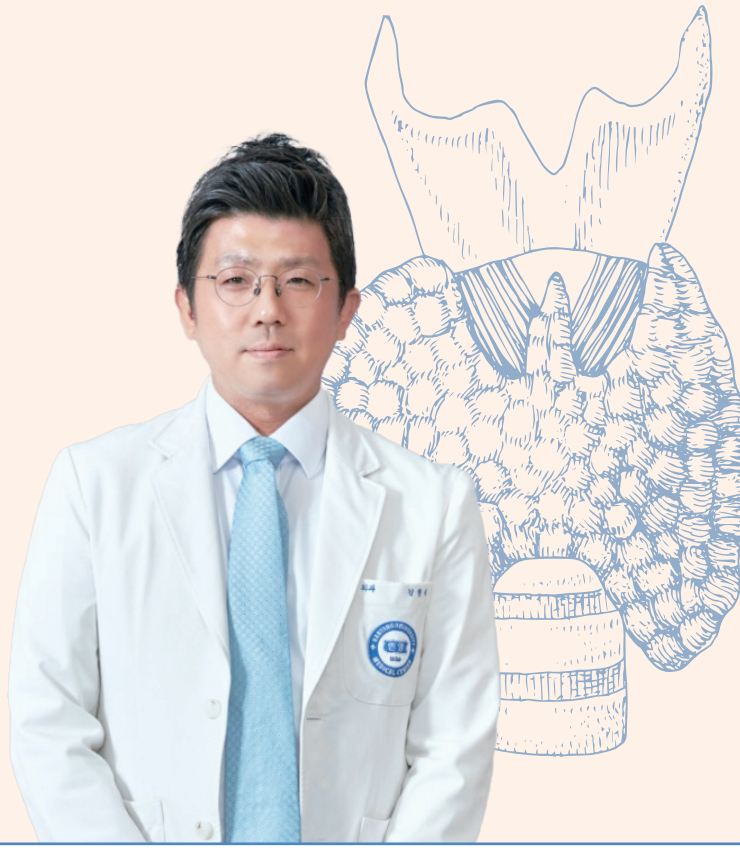

Biomaterials Research
A SCIENCE PARTNER JOURNAL
RESEARCH ARTICLE
Antibacterial Immunonegative Coating with Biocompatible Materials on a Nanostructured Titanium Plate for Orthopedic Bone Fracture Surgery

◀ Antibacterial Immunonegative Coating with Biocompatible Materials on a Nanostructured Titanium Plate for Orthopedic Bone Fracture Surgery

글. **김형석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예후가 가장 좋은 암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한 배우 진태현의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인 갑상선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만져지는 혹, 목의 이물감,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이 커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후가 가장 좋은 암으로 꼽히며, 치료 후에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갑상선암이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결과가 좋은 편이다.

아내 권유로 건강검진을 했다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은 배우 진태현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 5개월 만에 하프마라톤과 두 번의 10km 대회를 완주하며 대중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갑상선암 극복 과정을 털어놓으며 많은 응원을 받았던 그는 갑상선암 완치와 함께 최근에는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연예계를 대표하는 러너로 러닝 전파에도 나서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은 2022년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암 중 하나가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방치했다간 자칫 주변 장기로 전이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배우 진태현이 이겨낸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본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자리한 아주 작은 내분비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 체온, 심장박동, 신경계 기능까지 폭넓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곳에 생기는 결절(혹) 중 약 5~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최근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조기 발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암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3~4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은 왜 생길까?

갑상선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방사선 노출 어린 시절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방사선 사고에 노출된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 노출 시점이 어릴수록 위험도가 더 높다.

유전적 성향 특히 수질암은 가족력과 특정 유전자 변이와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다. 유두암과 여포암에서도 가족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여성 호르몬 및 연령 여성에게 흔하고 40~60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호르몬과 생리적 변화가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갑상선질환 동반 갑상선염이나 기존 결절이 있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질환이 반드시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및 생활요인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 비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

갑상선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대부분 정기검진 중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며,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만져지는 혹, 목의 이물감, 쉰 목소리, 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만으로 암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서도 조기 발견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료 지침이 발전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할까?

갑상선암의 진단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다.

초음파 검사 결절의 형태·경도·혈류 등을 평가해 악성 가능성을 예측한다.

세침흡인세포검사(FNAB) 초음파로 관찰되는 결절이 의심스러울 때 가는 바늘로 세포를 채취해 확인한다.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시술 부담도 거의 없다.

추가 영상 검사 암이 확실하거나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CT·MRI·PET 등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조직 검사를 시행하며, 크기가 매우 작고 저위험군인 결절은 바로 수술하지 않고 '활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적용하는 전략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 완치가 가능

갑상선암은 전체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은 암에 속한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고, 전이가 있더라도 적극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 치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다. 암의 크기와 위치, 전이 여부에 따라 엽절제술(반절제) 또는 전절제술(전체 제거)을 선택한다. 수술 후 목 흉터가 걱정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수술과 로봇수술 등으로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RAI) 수술 후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전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한다. 유두암과 여포암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갑상선호르몬 보충 및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억제 요법 전절제 후에는 평생 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진행성 암의 치료 방사성 요오드가 듣지 않는 경우 또는 진행성·전이성 갑상선암에서는 표적치료제, 외부 방사선치료, 면역항암치료(선택적 적용) 등 최신 치료가 활용된다.

치료 후 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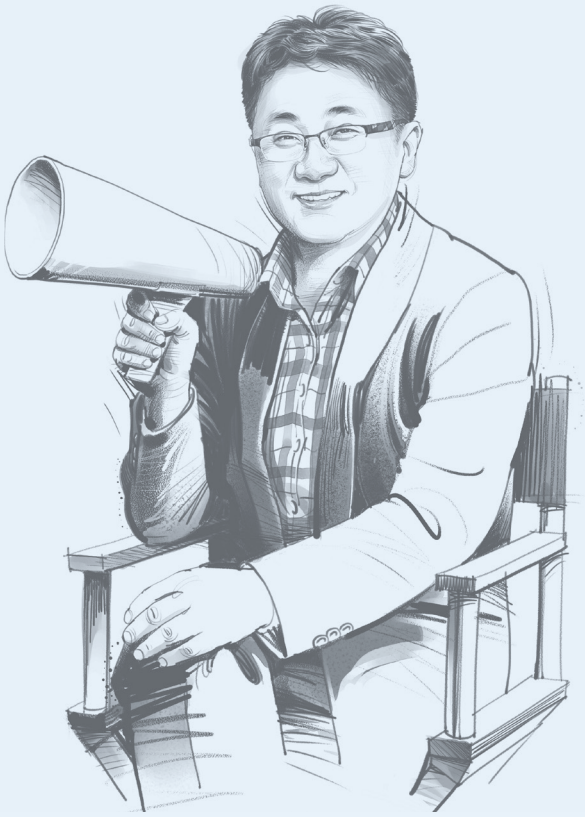
갑상선암 치료 후에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자극호르몬과 티록신(T4), 티로글로불린(Tg)의 수치를 확인하고, 경부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요오드 섭취, 체중 관리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호르몬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며, 장기 생존율도 매우 높다.

Dr. Movie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 인생의 영화 106





플라톤은 〈국가론〉 제7권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대비하였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두 세계의 관계뿐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철학자들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경고하였다. 동굴에는 태어날 때부터 족쇄로 묶인 채 동굴 뒤쪽의 어느 틈에서 들어온 빛에 의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실재라고 여기는 많은 죄수들이 벽면을 향해 앉아 있다. 그들은 사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이다. 평생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눈을 가린 채 각각 코끼리의 일부만 직접 만져서 어떤 존재인지 맞춰보라고 한다면, 굵은 통나무 같은 다리만 만진 사람은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말할 것이고, 길다란 코만 만진 사람, 큰 부채 같은 귀만 만진 사람, 각질로 뒤덮인 몸통을 만진 사람, 꼬리만 만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다시 '동굴'로 돌아가자. 온몸이 묶인 죄수들 중에서 한 명(그를 철학자라고 칭하자)이 족쇄에서 풀려나 빛이 들어온 입구인 뒤로 돌아가 동굴을 벗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최초로 그림자를 만드는 진짜 사물들과 그러한 그림자를 가능하게 하는 밝은 태양빛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여태 실재라고 여겼던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족쇄를 벗어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사물들에 비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마치 눈을 가린 채 코끼리를 만졌던 사람들처럼.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데아에 비해 얼마나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인지 깨달은 철학자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말하지만 죄수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플라톤은 대중을 우매하고 불완전하다고 하였고, 이들을 통치할 철인(哲人)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상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족쇄에서 풀려난 그가 접한 일시적 현실은 과연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일까? 맑은 날, 비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낮과 밤의 풍경은 다르다. 그런데도 그가 접한 부분적인 사실을 자신만의 '맥락'에서 '다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틀림'이라고 작정한다면 단초(端初)부터 잘못된 것이리라.

냉철하고 이성적인 일처리로 손해법인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손해사정사 유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빠의 채무에 엄마와 함께 빚을 변제하느라 항상 무거운 얼굴로 힘든 티를 숨기고 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사표를 낸 직장 동료를 대신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고객의 사망 보험금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건을 맡게 된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사람은 사망자의 피붙이도 아닌 웃음치료사 순규이다. 전직 개그맨 출신이라는 그는 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헷갈리게 하고 시험하려 든다. 사람들의 마음 속 상처를 치료한다는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의 마음도 자꾸만 흔들리게 되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혼란스럽게 된다.

〈넌센스, 2025〉의 첫 장면. 공장에서 작업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어 보상금을 청구한 직원을 만난 후 손수건에 싼 뼈를 작업대에 집어 놓고 손상의 종류가 다르니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유나는 시종일관 같은 톤의 어투와 표정을 지닌다. 늦은 밤 업무에 괴로워하던 동료는 복사기에 걸린 종이를 짜증이 섞인 채 빼내려 하고 있다. 여러 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그녀지만 유나는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도움을 주려던 유나에게 그녀는 필요 없다고 한 후, 처음으로 한 마디 한다. "좀 웃으세요." 며칠 후 그녀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그녀가 했던 업무를 대신 맡아달라는 본부장의 부탁에 회사에서 받던 인센티브를 그녀가 다 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말기암 환자가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은 맑눈광의 웃음치료사이다. 그는 때로는 속세에 능통한 속물처럼, 때로는 철학자처럼 그녀를 희롱한다.

"이 세상 모든 건 진짜예요. 동시에 가짜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사망 당시의 CCTV를 보면서 종국에는 그가 하는 웃음치료가 뭔지 조사하던 그녀에게 순규가 던진 말이다. 식칼을 들고 순규의 웃음치료소로 들어가던 어느 여자는 칼로 손목을 그으려 하지만 어느새 그의 품에 안겨 등산을 해보라는 다정한 충고를 듣는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부터 코치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으면서 쓰레기란 소리를 듣고 암묵적으로 돈을 가져오라는 시달림을 받던 고교 야구선수는 코치로 빙의한 순규에게 이성을 잃고 그를 자기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두드린다. 순규는 상대의 결핍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틈으로 침투하는 설득력이 뛰어난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 유나 역시 그에게 "꿋꿋하게 사는 사람하고 꼿꼿하게 서있는 사람은 다르다. 애써 괜찮은 척 아무 문제없는 척 꼿꼿하게 서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꽤 큰 구멍 같은 것을 안고 산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가엾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평생 가족에게 거짓말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같이 문병을 가게 되고 차라리 아빠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충고를 듣지만 유나는 차마 그럴 수는 없기에 포기한다.

시간이 지나 그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던 유나의 귀에 자살을 하려했던 그녀(식칼녀)가 산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보험금 수령이 웃음치료사로 되어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야구장을 찾아간 그녀의 눈앞에 코치로부터 맞고 있던 고교생 야구선수가 어느 새인가 방망이를 움켜쥐고 코치를 똑같은 방법으로 가해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이윽고 야구선수는 실없이 크게 웃는다. 웃음치료사가 내용도 없이 크게 웃던 것처럼. 암암리에 그에게 사망 보험금이 수십 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다. 그는 말한다. "가까운 존재한테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낯선 이에게 위안을 얻는 게 인간이다."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진짜였는지 묻는 유나에게 그는 "믿음은 돈이 된다."고 말한다. 결국 영화는 썩은 동아줄마저 없이 부조리를 견디기란 얼마나 괴로운가라고 말하는 듯하다. 사기꾼으로만 알았던 아빠가 결국 죽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던 버려진 농토에 아빠를 묻으려던 유나와 엄마 앞에 나타난 어느 사장님이 그들 앞에 말한다. 아빠는 선각자였다고, 이 땅은 10년 후에는 엄청 값이 오를 것이니 자기에게 땅을 팔라고 명함을 내민다. 유나는 결국 실없이 크게 웃고 만다. 이 모는 것이 넌센스처럼 여겨졌기 때문일까.

인간이 가지는 일상적인 착각들 중에서 주의력 착각이라고 말하는 무주의 맹시현상은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맹목적 확신을 말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전제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지하거나 오만하거나 멍청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기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미명 하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더 나아가 믿고 싶어 하며 살아간다는 인생의 넌센스임을 말한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혹은 믿고 싶으니까 진짜일 거라는 그릇된 신념이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을 게다.

독창적인 기법을 탄생시킨 지독한 고통





앙리 마티스와 관절염 Arthritis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프랑스 북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19살에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그는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보였는데, 특히 컷아웃(Cutouts, 종이 오리기)이라는 예술 방식을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앙리 마티스는 노년에 십이지장 암이라는 질병을 만나 수술한 뒤로 여러 후유증을 앓았다. 특히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 때문에 붓을 잡기도 어려웠던 그는 붓 대신 가위를 들고, 물감 대신 색종이를 이용해 들끓는 예술혼을 표현했다.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 색종이 조각을 캔버스에 붙여서 완성한 작품 중에는 걸작 〈이카루스〉도 있다. 관절염은 이렇듯 통증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한다. 관절염 중에서도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글. **남보라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관절염은 더 이상 삶을 멈추게 하는 병이 아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 전략을 세운다면 질환을 잘 조절할 확률이 높고 관절 변형도 예전만큼 흔하지 않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이다. 특히 손가락의 중간 관절과 손등 쪽 관절, 손목처럼 작은 관절을 중심으로 통증과 부기, 열감이 나타나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염증이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 연골과 뼈 손상이 진행돼 관절 변형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

진단은 증상의 양상과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혈액 검사(염증 수치, 류마티스인자, 항CCP 항체 등)와 필요 시 영상 검사(X선, 관절 초음파 등)를 종합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관절 초음파를 통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초기 염증을 더 민감하게 확인하고, 치료 반응을 추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손목 통증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부기와 조조강직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수 주 이상 지속될 때 류마티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관절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 염증을 충분히 억제하여 관절 손상을 막고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질환 활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치료를 조정하는 '목표 치료(treat-to-target)' 전략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중심으로 한 항류마티스약제(csDMARDs)로 치료를 시작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레플루노마이드, 설파살라진 등을 병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 조절을 위해 단기간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다리 놓기(bridging)' 목적으로 병용하기도 하지만, 장기 사용은 부작용을 고려해 최소화한다.

충분한 반응이 없거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TNF 억제제, IL-6 억제제, T세포 조절제, B세포 표적치료 등)나 JAK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치료 옵션의 확대는 예후를 크게 바꾸어, 과거와 달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 전략을 세우면 질환을 잘 조절할 기회가 많아졌고, 관절 변형도 예전만큼 흔하지 않다. 또한 치료는 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로와 통증을 고려한 활동 조절, 관절을 지지하는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감염 예방과 백신 상담 등 생활 관리가 함께할 때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이 더욱 단단해진다.

오늘날의 류마티스관절염

앙리 마티스가 관절염 속에서도 새로운 표현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그의 작품은 예술을 넘어 더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감동은 조용히 말해주는 듯하다. 몸이 힘들어져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마티스의 시대보다 치료 선택지가 훨씬 많아진 오늘, 류마티스관절염은 더 이상 삶을 멈추게 하는 병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손으로 일상을 그리고, 더 밝고 아름다운 색채로 미래를 채워갈 수 있다. 그 여정의 곁에서 의료진이 함께할 것이다.

글. 정유미 사진. 안용길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에 언제나 감동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윤여준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한 달여 만에 외래진료를 통해 만난 함영애 님과 윤여준 교수. 함영애 님은 전보다 말수가 늘고 대답도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다. 윤여준 교수는 함영애 님과 남편 정현택 님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자"고 말했다. 근력이 회복되었으니 서는 연습과 걷는 훈련을 해야 할 때라고 말이다. 사랑으로 뭉친 이들의 팀워크가 또 어떤 희망을 실현할지 기대가 크다.

마음까지 어루만져주시는 윤여준 교수님께



교수님은 저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0월, 아내(함영애 님)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2025년 1월까지 여섯 번의 뇌경색이 더 찾아왔어요. 뇌경색이 두 번째 발생했을 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옮겨 최호진 신경과 교수님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이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윤여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뇌경색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재활의학과에서 신경과로 다시 전과되거나, 재활병원으로 옮겼다가 4일 만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되돌아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었을 아내에게 윤여준 교수님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재활치료 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챙겨주시고, 장기 입원 생활로 피부에 염증이 발생했을 땐 피부과 협진 치료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재활병원으로 옮겨 외래진료로 찾아뵀을 때는 왼쪽어깨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핵의학과 전신 뼈 스캔 검사를 받게 해주셔서 불안 요소를 말끔하게 해소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이제 뇌경색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안정되었습니다. 심했던 섬망증상이 사라졌고 인지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의 왼쪽 편마비 증상도 호전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윤여준 교수님을 만나 치료 받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어루만져주시는 따뜻한 분이시고, 환자의 작은 어려움도 가족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이들의 수호천사인 '라파 치료의 천사'가 바로 교수님이세요.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늘 건강한 웃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함영애 남편 정현택 드림

늘 밝은 표정에 의지가 넘치시는 함영애 님께



힘이 들어도 밝은 얼굴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영애 님과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좀 어눌하고 왼쪽 편마비 증세가 조금 있으셨지만 표정은 밝고 의지가 넘치셨지요. 제가 '재활치료 하자'고 말씀 드렸을 때도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재활치료 도중에 새로운 뇌경색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활치료를 잠시 멈추어야 했고 걱정도 많았지요. 함영애 님의 인지나 의지가 전보다 조금 감소한 양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는 재활과 약물치료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팀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재활치료는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분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두 분이 지치시지 않을까, 호전 속도가 기대보다 더뎌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희망이나 기대를 놓으시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함영애 님과 보호자분께서는 고비가 올 때마다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 주셨기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늘 보호자분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치료실에 오셔서 열심히 치료 받으셨고, 힘이 들어도 밝은 목소리로 답해주셔서 주변 분들에게 의지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의사인 저 또한 그 모습에 큰 보람과 힘을 얻었지요. 현재는 섬망이 사라지고 인지도 호전되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뇌경색 발생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요. 재활치료는 자신과의 긴 싸움입니다. 이제는 자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기능 회복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애 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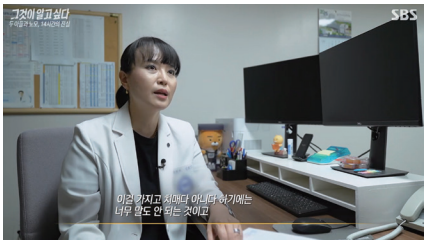
윤여준 드림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5년 10월 ~ 11월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박훈기 교수
걷기와 건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희진 교수
치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호 교수
낙상골절 막는 균형잡기



KBS 재난안전 인사이드 이준철 교수
저체온 · 미끄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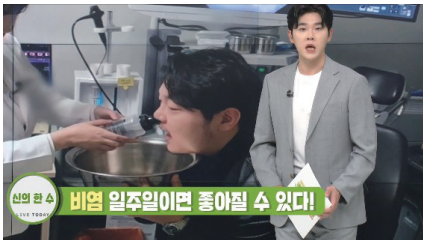
MBN 뉴스7 윤초석 교수
독감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박재현 교수
약이 되는 스트레칭



YTN 메디컬인사이트 장효준 교수
기흉



SBS 생방송 투데이 정선민 교수
비염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은 피부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 10월 3일 / 건선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 10월 8일 / 달릴까, 걸을까?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 10월 8일 / 달릴까, 걸을까?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10월 25일 / 치매 **김지영 성형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 10월 17일 / 유방재건 **장란숙 성형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 10월 23일 / 당뇨발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 10월 29일 / 콩팥건강 **이건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30일 / 불면증에 앱 처방?! 곯아떨어지는 수면습관 만드는 법 **홍승우 신경외과 교수** YOUTUBE [비온뒤 뜨는 한양] / 10월 31일 / 내 몸의 '떨림', 치료 필요한 경우는? / KBS Radio [건강365] / 11월 23일 / 손발떨림 **장효준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YTN [메디컬인사이트] / 11월 3일 / 가슴 통증? 폐에서 공기가 새어 나오는 질환, 기흉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 365] / 11월 6일 / 폐암 **이준철 응급의학과 교수** KBS [재난안전 인사이드] / 11월 10일 / 찬 공기 속 '달리기'…저체온 · 미끄럼 주의 **안성준 안과 교수**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1월 14일 / '눈이 침침' 혹시? 황반변성 완벽 정리!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1월 27일 / 황반변성 증상 세 가지 **윤초석 감염내과 교수** MBN [뉴스7] / 11월 21일 / 독감 대유행에 송년 모임도 줄줄이 취소…환자 수 작년 14배 **한상윤 이비인후과 교수** YOUTUBE [비온뒤 뜨는 한양] / 11월 24일 / 난청 환자의 청각재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재현 재활의학과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 10월 1일 / 약이 되는 스트레칭-유연해야 안 아프다 **박형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YOUTUBE [구리비전] / 10월 2일 /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월 15일 / 백년 습관, 파워 워킹과 슬로우 조깅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0월 17일 / 무엇이든 팩트체크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1월 12일 / 백년 습관, 질환별 맞춤 운동법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1월 19일 / 백년 습관, 낙상골절 막는 균형잡기 **정선민 이비인후과 교수** SBS [생방송 투데이] / 11월 6일 / '신의 한 수' 비염 일주일이면 좋아질 수 있다 **주현돈 소화기내과 교수** YOUTUBE [구리비전] / 11월 7일 /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건강검진에서 종양표지자 수치가 올랐어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4일 / 통풍에 맥주는 금물! 그럼 소주는? 와인은?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9일 / 통풍에서 가장 흔한 엄지발가락 통증, 이유는?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13일 / 통풍의 '육하원칙'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16일 / 통풍 생기는 꿀팁(?)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0월 20일 / 통풍 치료의 제1원칙 / YOUTUBE [Hihy 건강저장소] / 11월 6일 / 자다가 '으악!' 통풍 발작 시 대처법



한양대학교병원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중앙일보 / 10월 2일 / '위고비 건보' 논의 불붙나… 입법조사처 "고도비만 급여화 가능" / 서울신문 / 10월 14일 / 추석 연휴 후 치솟은 혈당… '식 · 단 · 탄' 식사와 운동으로 날려봐!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동아일보 / 10월 4일 / 잠옷소매 타고 목까지 타오른 불… 11회 수술로 이겨내 / 중앙일보 / 10월 20일 / 두경부 재건술, 외과 · 재건팀 등 다학제적 협력 중요 **권준수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 10월 4일 / 50대 남편 돌연 성관계 중독…"뇌 검사해라" 뜻밖의 질환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 10월 6일 / 술자리 많은 추석 연휴 '슬기로운 음주 생활' 방법은? **김희진 신경과 교수** 스포츠한국 / 10월 8일 / "달릴까, 걸을까?" 생로병사의 비밀, 워킹 · 조깅 · 러닝…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 **김정은 피부과 교수** 머니투데이 / 10월 13일 / 선크림 떡칠했는데도 "더 심해졌다"…구성환 앓는 이 질환, 뭐길래 / 머니투데이 / 11월 18일 / 아토피인 줄 알았는데 비듬처럼 각질이…비슷한 듯 다른 '두 질환' **최성훈 정형외과 교수** 매일경제 / 10월 19일 / 명절 음식 좀 했다고 안 펴지는 내 허리…"큰 사고 없었는데 척추 골절?"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동아일보 / 10월 24일 / 처방없이 자기 배에 비만주사제 찌르는 아이들… "부작용 위험"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중앙일보 / 10월 27일 / 10명 중 7명 감기약으로 착각한 '이 약'…내성균 만드는 주범 / 머니투데이 / 11월 18일 / 맞아도 걸려, 걸려도 또 걸려…"독감 진실? 이게 진짜입니다" / 서울신문 / 11월 25일 / 독감 최선의 예방은 백신… 이미 걸렸어도 접종하세요 **정민성 외과 교수** 서울신문 / 10월 27일 / 작은 멍울에 가슴 덜컹… 유방암, 30세 이상은 매달 꼭 자가검진 **김승현 신경과 교수** 매일경제 / 10월 27일 / 20년만의 루게릭 신약… K바이오도 '도전' / 매일경제 / 11월 3일 / "루게릭병 치료 길 열려… 조기 진단도 중요"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 10월 28일 /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고? 차라리 문 닫겠지"…응급의료법에 의사들 '싸늘' **이원무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 11월 3일 / 별생각 없이 손톱 주변 살 뜯었는데…그러다 손톱 빠진다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외 4건 / 11월 3일 / 중증 천식 환자 90% "약값 부담 커 치료 중단" **김영서 신경과 교수** 서울신문 / 11월 4일 / 난 건강! 자신만만 4050… 일교차 커진 요즘, 심장 · 뇌 위험천만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 11월 4일 / "안성기, 몸 많이 안 좋다" 투병 근황… 전두환도 걸렸던 '이 병' 뭐길래 **배근형 정형외과 교수** 국민일보 / 11월 11일 / 팔 · 다리에 혹… 달걀만큼 커지고 살 빠졌다면 암 의심 **나재윤 소아청소년과 교수** 머니투데이 / 11월 11일 / '49kg' 인증 5일 뒤 '픽'… 춤추던 현아 쓰러뜨린 '이 병', 대체 뭐길래 **이상표 소화기내과 교수** 중앙일보 / 11월 17일 / 송년회 시즌, 위건강 지키려면…술잔 옆에 '이 안주' 두세요 **한동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국일보 / 11월 18일 / 친구들과 걷는데 나만 숨차서 뒤처진다면… 폐 기능 검사 받아보세요 **양승 소아청소년과 교수** 중앙일보 / 11월 20일 / 키 180㎝로 키울 수 있을까? 왼손 '두 손가락' 보면 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 한국경제 / 10월 14일 / 최호진 교수 "치매, 조기에 의료진 상담 필요…건강기능식품 의존하다 골든타임 놓쳐" / 이데일리 / 11월 26일 / 양극성 장애 사망률 OECD 1위…韓 정신보건 지표 '최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남보라 류마티스내과 교수 서울경제 / 10월 4일 / 명절이 두렵다? 추석 연휴 '관절 건강' 지키는 꿀팁 / 서울경제 / 11월 5일 / 강직성 척추염 환자, 임신 또는 수유 중 'TNF 억제제' 치료 가능

HANYANG NEWS

2025년 11월 ~ 1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원 매거진, 기획대상 수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발간하는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독창적인 기획력 ▲의료 전문성과 대중 친화적 콘텐츠의 균형 ▲환자 중심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텔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쇄사외보 부문 기획대상'을 수상했다.

의과학연구단, 현판식 및 업무협약



한양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단은 지난 11월 24일 학제간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 기반 강화, 연구중심병원 인증 추진을 위해 의과학연구단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같은 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2의학관에서는 바이오플러스㈜와 연구 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OPD 및 천식 적정성 평가 1등급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진료 역량을 입증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제10차 COPD 적정성 평가에서 7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역시 1등급을 획득했고, 제11차 천식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했다.

산부인과학교실, 제30차 개원의 연수강좌

한양대학교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은 지난 12월 7일 체태아의학, 생식내분비학/일반부인과학, 부인종양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한 '제30차 개원의 특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2025 통합 학술대회 및 한양의대인의 밤 성료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일 개원의와 동문, 재학생, 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통합 학술대회 및 한양의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HY Global BioMed 2025 개최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한양생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11일 바이오 기술사업화 행사 'HY Global BioMed 202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원과 대학이 보유한 바이오·의료 기술을 기업과 공유하며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한양대학교병원

2025년 의료질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의료질평가'에서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년 연속 최상위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

첨단재생의료센터-세포치료센터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14일 '2025 첨단재생의료센터-세포치료센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및 세포치료 분야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연복 셰프, 한양대학교병원 홍보대사 위촉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12일 이연복 셰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을 통해 이연복 셰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재능기부로 환자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최신 사양 CT· MRI 전격 도입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27일 최신 CT·MRI 장비 가동식을 열고 영상 진단 역량을 강화했다. 지멘스 'SOMATOM Force' CT와 GE 'SIGNA Premier 3.0T' MRI 도입으로 검사 속도와 영상 품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제14회 감염관리·항생제적정사용 주간행사



한양대학교병원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과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4회 감염관리·항생제적정사용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개교 20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누리봄교실'은 지난 11월 21일 장기 치료 환아들의 학업 연속성을 지켜온 지난 20년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혈관 중증진료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1일 심혈관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연속성 있는 치료 제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혈관 중증진료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국, 조직문화개선 활동 공모전 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국은 '2025년 조직문화개선 활동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외래간호팀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H·O·P·E'가 공감과 협업을 촉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아이들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4일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과 응급·중증 소아환자 전원 체계와 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식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

과민성 장증후군 및 변비 공개강좌

한양대학교병원 이상표·박진화 교수가 지난 12월 5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및 변비'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0월 31일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교직원과 내외빈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2024년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주요 지표 전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호흡기질환 진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업무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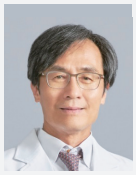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1월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기증 문화 확산 및 기증 업무 질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아 지원 위한 따뜻한 후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신한카드와 여민재단으로부터 소아암 및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취약계층 환아를 위한 후원을 잇달아 받았다. 신한카드로부터 '아름인 드림박스(항균용품)'를 후원받고, 여민재단으로부터 의료비 및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인물동정



태경 교수,
갑상선암 원격접근 수술 글로벌 표준 제시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는 갑상선 및 부갑상선 원격접근 수술 국제 합의 성명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해 글로벌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서현민 교수,
대한피부진균 및 감염학회 젊은 의학자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서현민 교수가 제8차 대한피부진균 및 감염학회 정기총회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이준철 교수,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준철 교수가 재난의료 및 응급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안성준 교수,
대한안과학회 한길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가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에서 한길학술상을 수상했다.



박선철 교수,
한빛사 6번째 등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교수의 논문이 한빛사 상위 피인용 논문 분야에 총 6번째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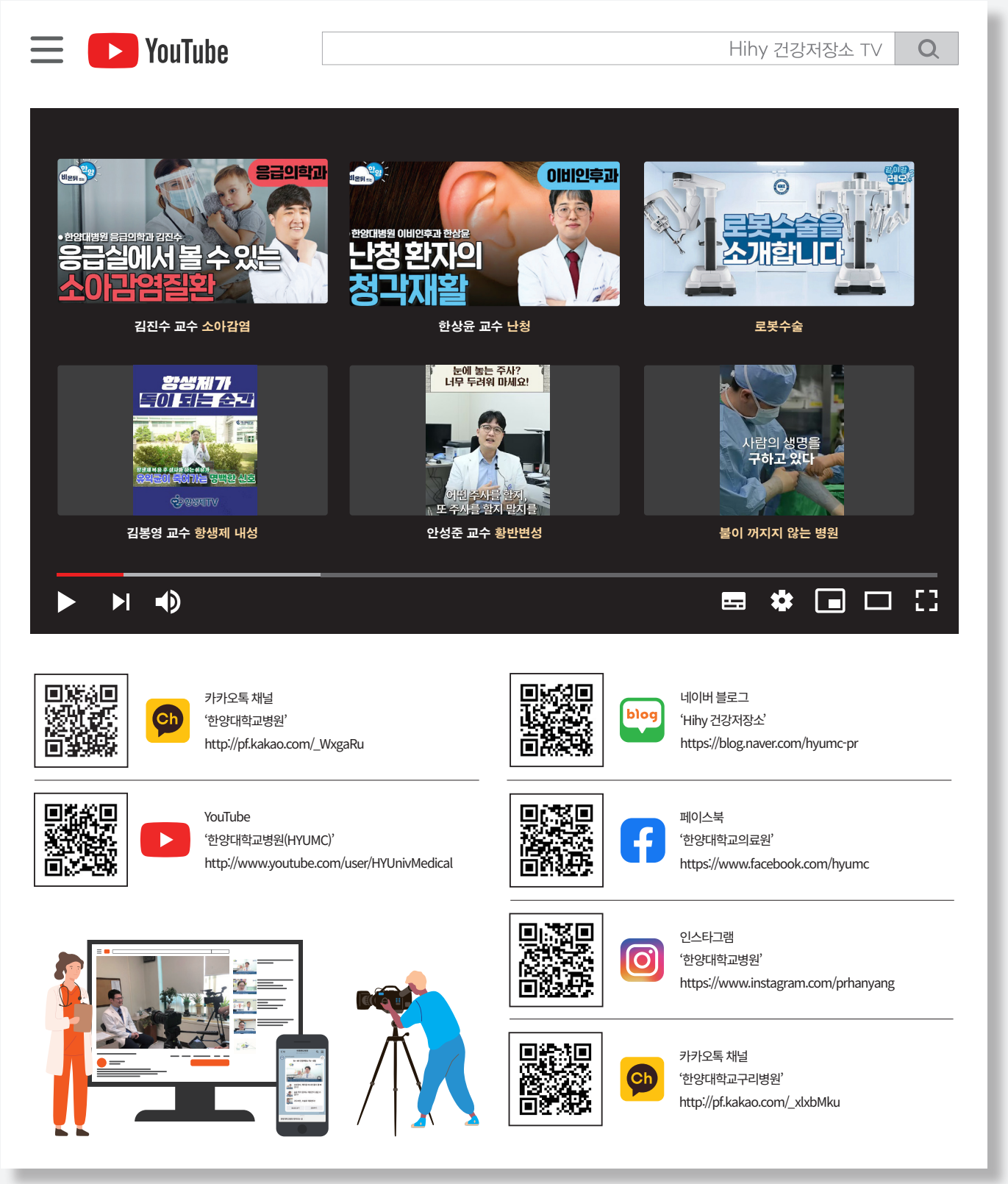


한건희 교수,
2025년 국내 주요 학회 4관왕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한건희 교수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하며, 2025년 한 해 주요 학회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5년 11월 ~ 12월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네이버 블로그
'Hihy 건강저장소'
https://blog.naver.com/hyumc-pr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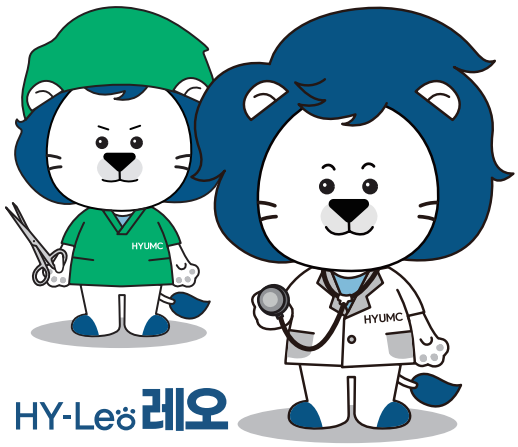
페이스북
'한양대학교의료원'
https://www.facebook.com/hyumc

인스타그램
'한양대학교병원'
https://www.instagram.com/prhanyang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

NAVER 블로그

Hihy 건강저장소 블로그



한양대학교병원 블로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의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05 로봇수술에 대한 모든것! 로보닥
다양한 질환을 좀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로봇 수술! 각 분야의 어떤 질환들을 로봇으로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김이석 교수



남보라 교수



이건석 교수



이상표 교수



이원무 교수



전재범 교수



정윤경 교수



최종욱 교수



홍승우 교수



송승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소식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질환 알아보기&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병원
Hihy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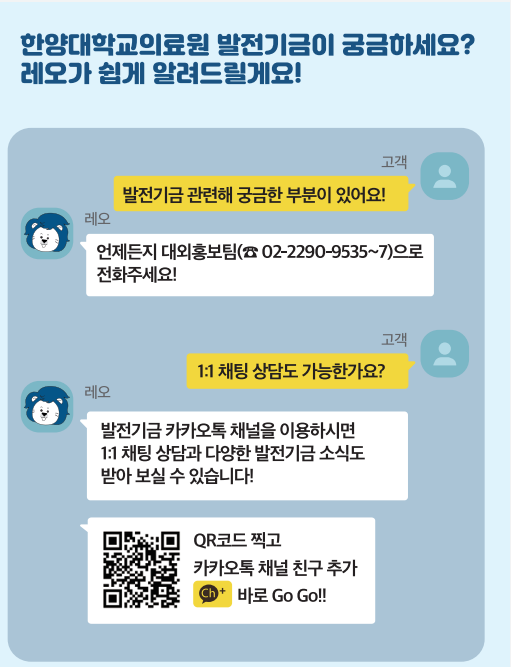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환경개선, 연구개발, 학술지원, 인재양성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발전기금 홈페이지 QR코드

기부 방법

방법 1 약정서 제출

▶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약정서 내용 작성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방법 2 온라인 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인식
▶ '온라인 기부' 클릭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7

기부자 명예의 전당

2025년 10월 ~ 11월

1억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최종태 우림해운㈜	**태경** 진료석좌교수	**차상석** ㈜한일사료
		故유영조 동문

기부자 명단

2025년 10월 ~ 11월

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정자헌 정자헌내과의원	김재민 명예교수			
50만 원 이상 ~ 1백만 원 미만	오영하 교수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국인철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도윤 새움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병제 김병제내과의원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연주 직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태완 홍익안과	김희수 수원제일정형외과의원
	남은미 직원	박미숙 직원	박정하 직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고객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양 현 직원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새움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인병원	이진규 교수
	이창훈 교수	이희제 연세정형외과	임영효 교수	정규성 교수	정승원 산본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새움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윤영 교수	최진미 직원
	최혁중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한현수 직원	황규태 교수	익명 고객
10만 원 미만	권난희	권연희	공상훈	김나영	김명환
	김소윤	김애경	문병임	익명	민지훈
	백승엽	박미옥	박미숙	박상혁	박신준
	박유순	박지경	박진희	서혜영	손진석
	신정미	신정철	안계현	양미영	연제호
	오기향	오정님	오홍석	유혜경	윤용호
	음희재	이경철	이의산	이정희	이현주
	임연희	임지영	전순아	진춘희	최순익
	황미현	황운택	황희복		

2025~2026 서울시 지정

365일 24시간

우리아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

24시간 소아 전문의 진료 '우리아이 안심병원' 동북권 지정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피부과 등 각 진료과의 소아진료 담당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소아응급 협진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상시 진료서비스로 **밤, 새벽**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아이들과 보호자가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고 수준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신생아 치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신생아 중환자 맞춤 치료**를 제공합니다.



소아응급 진료는,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바로 응급실로!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 2026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 내시경	이오영	월화▲수금▲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 화 수 목	수	간질환 간암
	이항락	월▲수▲금토(2주)	월 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월▲, 화 토(4주)	월▲화▲수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화 목▲	월▲수▲목금▲	담낭 담도 췌장
	이상표	월 화▲, 목▲, 금, 토(1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아일린	해 외 연 수(~2026.08.31.)		
	박진화	수▲, 목금▲, 토(2주)	월 화▲, 수,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효영	화 수, 토(3주)	수▲, 목, 금	간질환 간암
	임대현	화▲, 목, 금, 토(5주)	월▲, 화, 목▲	췌담도, 간 위 장내시경
	이윤석	월 수, 금▲	금	췌장 담도질환
심장내과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혈관질환 예방 심혈관중재술 심장초음파
	임영효	수, 금	월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시술, 대동맥 판막 협착증
	박진규	월목(박동기클리닉)	화	부정맥(상심실성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 ※박동기클리닉(목): 심부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허 란	화	월 목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생인선천성 심질환, 심장초음파
	김우현	목	화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국형돈	해 외 연 수(~2026.2.28.)		
	박진선	화(박동기클리닉), 토(2주)	월 수	부정맥(상심실성빈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서맥), 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 ※박동기클리닉(화): 심부동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박수정	토(1주)	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중재시술, 심장내과 일반질환
	조하혜	목, 토(3주)	화 금	심근병증, 심부전 심장판막증, 고혈압, 생인선천성 심질환, 심장초음파
신장내과	김근호	월 금, 토(4주)	화 목	전해질 장애, 신부전 복막투석, 고혈압, 부종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만성신부전, 고혈압
	박준성	월 목, 토(1주)	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종욱	화 토(1주)	월 목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화 목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질환, 갑상선질환, 각종 호르몬이상당뇨병, 말단비대증
	박정환	월 수, 금, 토(3주)	수,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다공증질환
	문신제	월 수, 목, 토(1주)	화 목	당뇨병, 뇌하수체, 부신, 비만, 갑상선, 골다공증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기관지 내시경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만성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간질성 폐질환
	손장원	목	금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월 화 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면역치료, 약물부작용
	박동원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월-목▲, 금	월▲, 화, 수-금▲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결절, 폐암, Post-Covid 증후군, 결핵, 비결핵항산균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기침
	한동우	월▲, 화, 수, 목-금▲	월-목▲, 금	일반 호흡기질환
혈액종양내과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골수종(70세이상), 두경부종양, 노종양, 두경부종양, 식도암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 골수종(70세미만), 조혈모세포이식
	이종욱	화 수, 목		재생불량성 빈혈, 발작성야간혈색뇨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감염내과	배현주	장 기 출 장		
	김봉영	화	수, 금(1/2·23·30)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김진남	목	월, 금	감염질환 HIV/AIDS,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박세윤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항생제스튜어드십,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윤초석	금	화 금(11/16)	감염질환 불명열 항생제내성균 성인예방접종 여행의학 HIV/AIDS 감염관리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 화 수, 금	월-목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0830~1730
중환자실 내과계	이용준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0830~1730
중환자실 외과계	전종헌	월-금	월-금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0830~1730
중환자실 EICU1	강형구	월-금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1	곽현정	월-금	월-금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2	강일모	월-금	월-목	응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중환자실 EICU2	이정수	월 화 수	화 수, 금	
소아청소년과	구자욱	월 수	화 수	소아신장 혈뇨, 단백뇨, 신증후군, 요로감염 야뇨증, 신장낭종
	김용주	화(내시경전문), 목 금(내시경후진료)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소아비만 영양부진 특수 영양치료, 중금속 중독, 내시경치료
	양 승	목, 금, 토(2·3주)	화 목 금 (동관 3층)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희귀유전질환 희귀대사질환
	문진화		수	두통, 뇌전증 발작(경련), 뇌수막염 뇌기능장애 신경유전대사질환 영유아발달평가
	박현경	월(육아지도실),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안자혜	휴 직		
	나재윤	수, 토(1·3주)	화 수(심장초음파)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생인선천성심장병 가와사키병 소아중환자
	임성민	월 목, 토(2주)	수	소아 감염성 질환 발열 불명열
	최진주	휴 직		
	유명진		화 금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 당뇨, 갑상선질환 부신질환 유전대사질환
	강윤구	월		일반소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이현주	월, 화, 수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08:30~17:30
육아지도실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영유아검진(일반)			
	예방접종(일반)			육아상담 예방접종
신경과&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수▲(루게릭)	퇴행성질환(루게릭병-초진은 수요일 오후만 예약),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김희태	화 수, 목▲(파킨슨)	화,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초진은 수요일만 가능, 화목 초진 불가), 손떨림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김영서	월 금, 토(1·5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오기욱	수▲(루게릭)	월▲(루게릭), 수▲(루게릭초진), 목	퇴행성 질환(루게릭병 초진은 수요일, 월/목: 운동신경원병),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3주)	월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 화, 금▲, 토(2·5주)	월▲	퇴행성질환(루게릭병, 치매), 유전성신경계질환, 두통, 어지럼증
	정 수	월, 목, 토(1주)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목▲토(4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강일모	토(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강성우	수, 토(2주)	수, 금▲	치매,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 두뇌건강
	이정수	금▲	월	
정신건강 의학과	권준수	수, 목	월	조현병, 강박증
	노성원	화, 금, 토(2주)	월, 목	중독질환(알코올, 담배, 도박, 게임),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조울증, 조울병), 불안장애(공황장애), 우울증(주요우울장애)
	김인향	월 수, 토(2·4주)	수, 금	소아/성인 ADHD(집중력문제), 틱, 발달지연, 소아청소년트라우마, 학교스트레스, 가족치료
	김낙영	월, 토(1·5주)	화, 목, 금	치매, 노인우울증,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일반		월, 화, 목, 금	대리진료 불가
피부과 ▲피부미용 레이저클리닉	고주연	월(류마티스피부과), 화, 금▲(1·3주)	월, 금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일반		수, 목, 금	대리진료 불가
	김정은	월, 수, 목, 금▲	화,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주민숙	수, 목, 금	월,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상부위장관	하태경	화	월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로봇 위암수술, 복강경췰장수술
외과 상부위장관	이주희	해 외 연 수(~2026.2.28.)		
외과 혈관	최지윤	화, 금	수	혈관외과, 신장이식
외과 췌장, 간담도	이경근	목	화	간 담도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외과 췌장, 간담도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췌장, 간담도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외과 췌장, 간담도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간이식,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췌장, 간담도	이준선		금	간 담도, 췌장질환
외과 대장, 항문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외과 대장, 항문	박성실	화	금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외과 유방, 갑상선	정민성	목	월, 목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로봇수술
외과 유방, 갑상선	차치환	수	화, 수	유방암, 로봇수술
외과 갑상선, 부갑상선	박신정	목	금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갑상선암, 부갑상선암, 내분비외과, 부신질환, 로봇질환, 양성유방질환
외과 소아	손준혁	금	화	소아, 소아외과질환/성인, 성인 탈장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장질환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효준	월, 수, 토(4주, 하지정맥)	목(하지정맥)	폐암, 종격동 종양, 기흉,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승환	목	화	흉부종양, 폐암, 종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벽기형(오목가슴, 새가슴), 기흉, 다한증, 흉부외상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현수	수, 금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 동정맥류, 말초혈관질환 (말초동맥 협착증 및 폐쇄,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연수	화	금	폐, 식도, 흉강경수술, 하지정맥류, 누두흉, 다한증
정형외과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정형외과	이봉근	화, 목,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김이석	수	월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손상
정형외과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이창훈	월, 금	수	수부 및 주관절질환 미세수술
정형외과	최성훈		해 외 연 수(~2026.07.31.)	
정형외과	배근형		화, 금	소아정형(소아골절 족관절, 고관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백광흠	월,수		요통, 디스크(머리, 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목요일 오전 경추클리닉(요추 재진진료도 가능)
	최규선		월,수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금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홍승우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및 동정맥기형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한건희	화	금	뇌혈관질환,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f/u 진료
성형외과	김연환	화,목	화	상하지재건, 화상 및 외상후 재건, 욕창, 골수염, 미용성형(코), 두경부암재건
	장란숙	월	월,목	하지재건(미세수술) 및 당뇨발, 소아성형, 안면외상, 만성창상, 레이노 증후군
	김효성	화	수,금	미용성형(눈), 양성종양, 만성창상, 욕창
	김지영	수,금	월	유방성형 및 유방재건 피부암, 안면외상, 흉터&켈로이드, 안면마비재건, 림프부종
산부인과	최중섭	월,수	수,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목	화,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토(4주)	월,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24주) 목요일 오전: 여성암생존자클리닉
	이원무	화,금,토(2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수	금	일반산부인과
안과	임한웅	화	월,목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금	화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해 외 연 수(~2026.07.31.)		
	김유정	월,금	수	각막질환, 건성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쇼그렌증후군, 백내장
	김지홍	월,목	수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박혜민	수	월,금	녹내장, 백내장, 사신경질환
	일반	수,목,토(1~5주)	화,목,금	일반안과질환(전공의 진료)
이비인후과	태 경	월,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조석현	월,화,토(3주)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내시경수술, 코성형
	송창면	목	화,목	갑상선암, 두경부종양, 로봇갑상선, 두경부종양수술, 후두음성질환
	정재호	화,목,토(2주)	화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소아이비인후과 질환, 안면신경질환
	한상윤	수,금,토(4주)	월,수	난청, 이명,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전이개누공,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김용태	화,목	화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수	수,목	비뇨기 종양(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 수술, 전립선비대증
	윤영은	월,화	월,화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비대증
	정규환	수,금	수,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재활의학과	김미정	월,수,금,토(4주)	월,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최수진	월▲, 화, 목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통증재활 (▲: 서관 7층 루게릭클리닉)
방사선종양학과	박혜진	월, 화, 목	화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신경과 침샘치료, 방관암연구환자(p.박권오)
	정주현	수, 금	월, 수	부인암, 전립선암, 소화기암, 림프종, Sarcoma, Brain Tumor, 기타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 치료
치과	황경균	월,화	월,화,목	턱얼굴성형(기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타액선)질환,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목,토(3주)	화,목	임플란트, 잇몸/뼈이식술, 턱얼굴 성형수술, 턱얼굴 골절수술, 기타 구강외과 수술
	한지영	월,화,수,금	월,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화,금,토(1주)	월,화,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수,목,토(3주)	월,수,목	심미교정, 수술교정, 투명교정, 중장년교정, 소아교정(치아맹출장애, 턱성장조절, 예방교정), 소아예방치료(불소, 홈메우기), 소아충치치료
	인희진	월~목,토(5주)	화,수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충치치료
	김우섭	월~금	월~금	
	이원우	월~금	월~금	
	전종훈	월~금	월~금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월,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목	화,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금	수	노인의학, 금연, 비만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황환식		화,금	
	박계영	화,금	수	
직업환경 의학과	이수진	월,화,수	목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
	김인아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
	민지희	수,목	수,목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 업무적합성 평가
	김양우	월,화	월,화	
	일반	월,수,금,토(3주)	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월,수,목	월,목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골관절염2
	전재범	화,수,금,토(1주)	목,금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수,목,토(1,4주)	월,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수,목,금	월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수,목	수,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프스, 골관절염
	조수경	월,수,목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금	월,화,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최세림	수,목,금	화,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김용범	월,금	월,목,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수,금,토(3주)	월,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발크라닉
	이규훈	월,화,목,토(3주)	화,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재활
통증의학과	김초롱	화,금	화,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월	쇼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질환 관련 건성안공막염,포도막염,백내장,각막질환,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4주)		포도막염, 류마티스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센터	박훈기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수,목,토(2주)	화,금	가정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6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한동수	목	화	위장관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은창수	수,금,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용종절제술
	안지현	해 외 연 수(~2026.02.29.)		
	주현돈	화,목,토(3주)		췌장질환,담도질환,담석증,췌장암,담도암,췌장염
	오은혜	휴 진		
	이재곤	월,화,토(1주)	금	위질환,대장질환
	정병욱	수,금,토(5주)	화	위질환,대장질환,위내시경,대장내시경,소장내시경,용종절제술,위암,대장암,내시경절제술,염증성 장질환
	김하일	목,금	화, 수	각종간질환,지방간,알코올성간질환,바이러스간염,간경변증,간경화증,간암
심장내과	박환철	화,목,토(1주)	수	부정맥성질환, 심방세동, 상심실성빈맥, 동기능부전증후군, 서맥형부정맥, 혀혈성심혈관질환스텐트시술,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신정훈	월,수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말초혈관질환,심혈관중재시술,고혈압,심부전,대사증후군
	김병식	화,수	금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 중재 시술,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해 외 연 수(~2026.08.31.)		
	김현진	금,토(4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심장초음파 및 혈관초음파
신장내과 ▲클리닉	한상웅	월,수,목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유미연	화,수▲	월, 목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지원	목▲,금,토(1주)	화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이신영	토(3주)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 내과	이창범	화,수,목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병예방, 당뇨병치료,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유성훈	월,목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종양, 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화	화, 수,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비만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센터	이혜순	수,목,금▲,토▲(2주)	월▲, 화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베체트병,섬유근통,만성통증,쇼그렌
	방소영	월▲,화,금,토(2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루푸스,강직척추염,통풍,골관절염,베체트병,쇼그렌,염증성근염
	주영빈	월,수▲,목,금,토(1,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강직척추염,통풍,루푸스,경피증,베체트병,피부근염,섬유근통,쇼그렌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목,금,토(2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인공호흡기, 패혈증, ECMO, 중환자초음파,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호흡기질환(폐렴/폐결핵/폐색전증), 기침/호흡곤란/객혈, 기관지내시경
	여유미	화, 수, 목, 토(1주)	금	간질성폐질환,폐암,결핵,COPD,천식
	한경일	금,토(3주)	월, 목, 금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암
혈액종양 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유방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원영웅	월,수,토(3주)	화, 수	뇌신경암,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흉선암, 위암, 소장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육종, 기타 전이암재발암,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림프종, 다발골수종,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이상 등 기타 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김태은	금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주겨레	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 감염,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금,토(5주)	월, 화	소아신경질환, 경련, 열성경련, 뇌전증, 뇌염,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ADHD, 발달지연, 발달검사, 뇌파검사
	최영진	월, 수, 토(1,3주)	월, 수, 목	소아알레르기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나필락시스, 크룹, 모세기관지염, 폐렴,소아알반질환,변비,설사,복통,소아감염
	최윤수	화,금,토(2주)	화, 수, 금	저신장,성조숙증,비만,당뇨,갑상선질환,부신질환,뇌하수체질환,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해 외 연 수(~2026.2.28.)		
	나재윤	금(심장초음파, 1/2·16·30)	금(1/2·16·30)	소아청소년 심장질환,청색증,가와사키병,심잡음,고혈압,혈관질환, 부정맥, 실신, 성인선천성심장병
	황제균	화,목		신생아황달, 미숙아황달, 영아황달, 예방접종, 국가영유아검진, 육아상담
	유지선	월,목,토(4주)	월, 수, 목	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질환, 당뇨, 비만, 지방간
신경과	이영주	화,금	월, 목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어지럼증
	이규용	월,수,금,토(3,5주)	화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고성호	월,화,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목	월, 목	치매, 두통, 어지럼증
	권혁성	수,토(1,2주)	월, 수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박성호	월, 수, 토(4주)	금	뇌졸중,두통,Intervention clinic
	일반		화	
정신건강 의학과 ▲클리닉	김대호	수,목,금▲	월, 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불안장애
	최준호	월,수,금	월▲,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재발성우울증
	박선철	화,목,토(1,3,5주)	월, 화	우울증, 불안증, 노인정신의학
	윤진웅	월,화,토(2,4주)	목, 금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소아발달장애, 소아ADHD
	일반		수, 목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소아발달장애, 소아ADHD
산부인과	류기영	월,화,목,토(2주)	화	조기진통, 조산, 고위험 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치료, 단일공법 복강경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자궁하수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부인자궁암, 난소암, 단일공법, 복강경 자궁근종, 난소혹수술, 갱년기, 부인암클리닉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만성통증센터	정진환	월,토(1주)	화,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혈관내수술(뇌혈관내수술인증의), 두부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류제일	화,수,토(2주)	화▲,금	척추질환(디스크탈출증, 척추내시경), 척수종양, 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한명훈	월, 목, 토(5주)	수	뇌종양,뇌전증,기능뇌질환,뇌발작,신경외과술,뇌종양,뇌혈관기형(두부외상
	원유덕	금,토(3주)	월,수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기형 혈관내수술 뇌외상
	하병진	목, 토(4주)	월,화	퇴행성척추질환(디스크,협착증), 척추외상,최소침습수술,척추내시경수술, 통증중재시술
	강상묵	수	금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뇌출혈, 뇌졸중,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나민균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부외상
	고신웅	화,금,토(2주)	목	뇌동맥류,모야모야병,뇌혈관협착,뇌출혈,뇌졸중,혈관기형,혈관내수술,뇌외상
심장혈관 흉부외과	노선균	화,금	금	심장판막질환,심장동맥질환,심장종양,대동맥질환,폐동맥질환, 중증심부전,말초동맥질환,치장부전증,흉부외상,기흉,ECMO
	최수환	월,수	목	흉강경수술,폐암,식도암,기흉,대혈관,종격동질환,흉부외상,흉막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수,금		퇴행성 골다공증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및 강직성척추염 척추손상 경추질환 및 척추관절염
	박기철	수,금	월	외상클리닉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다공증 골절, 불유합, 골수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정규성	화	수,목	무릎관절 스포츠손상(인대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
	조영훈	화,목,토(5주)	월	견주관절 관절경 스포츠손상 오십견 화전근기파열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골절 및 외상
	이영석	월	화,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티스 수부질환 손목 팔꿈치관절경
	소재완	목,토(4주)	화,수	퇴행성경추요추질환 경추·추간판디스크탈출증 요추추간판디스크탈출증 경추요추외상,최소침습적척추수술,미세현미경수술척추내시경수술
	김현준	토(2·5주)	목,금	척추 일반질환 경추, 흉추, 요추
	김성재	월,금,토(2주)	월	발과 발목의 모든 중증 질환 및 외상 발목인공관절 최소침습적 무지외반증교정수술, 최소절개 종골(뒤꿈치뼈) 골절 수술, 중증당뇨발 및 사루관절병증 재건 발목관절인대재건술, 평발 및 요족재건술
	일반	수,목,토(3주)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말초신경수술, 수부재건, 유방성형 당뇨발 욕창
	이장현	화,토(1·4주)	목	안검하수, 안면기형, 안면골절, 피부암, 침샘종양, 미용성형, 욕창, 당뇨발, 신체감정
	장정우	월,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수	화,금	유방재건및성형 흉터성형 당뇨발 미용성형
외과	김한준	화,금	목	간담췌외과, 복강경수술
	김민규	화,수,토	월	상부위장관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위궤양,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김형석	월,목,토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갑상선암)
	이준호	해 외 연 수		
	김현일		금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조유정	화,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아탈장, 소아외과질환, 생인툴장
	황성환	월,수	수	항문질환 치질
	최광우	금	월,목	동정맥류, 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 말초혈관질환, 중심정맥관, 복부대동맥류, 신장이식
	박예종	목	월,화	간담췌 외과, 복강경 수술
안과	강민호	화,목,토(1주)	월	각막,결막안구건조증,렌즈,안검수술,안구성형,백내장수술,사시,소아안과,스포츠
	홍은희	목,토(3주)	월,수	신경안과사시,소아안과,자극,시력,안경,망막염,성형안과,눈물길,클리닉
	황선진	수,토(4주)	화,금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윤주영	월,토(2주)	화,목	녹내장, 고안압증, 백내장
	홍림경	화,금,토(5주)	수	백내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일반 안과질환
	일반	금		
피부과	김정수	월,화,목,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사마귀,성질환, 건선, 내성발톱
	서현민	수,토	월,수,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일반		금	일반피부 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수,토(3주)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금,토(2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및 코막힘수술 알레르기비염,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부비동종양,코성형
	지용배	월,목,토(1·4주)	화	두경부종양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종양 내시경갑상선수술, 경부종양 음성질환 성대결절
	정선민	수	월,금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부비동염, 내시경부비동수술, 비중격수술,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이비인후과감염질환, 일반이비인후과질환
	서희원	목, 토(5주)	월,수,금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비뇨의학과	문홍상	수,목,토(4주)	월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인비뇨의학
	이승욱	월,금,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복강경수술 남성과학
	심명선	월,토(2주)	수,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다빈치로봇수술, 복강경수술, 소아비뇨기과질환, 전립선질환, 결석
	송병도	화,토(3주)	월,금	배뇨장애, 비뇨기계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만성 통증센터	장성호	월,목,금	월,수	근골격계재활,소아재활,스포츠의학,뇌신경재활,도수치료
	한승훈	화,수,목	화,목	근골격계재활,보행분석,족부질환,도수치료
	박재현	월,화▲	화,목▲,금	근골격계재활,심장재활,호흡기재활,알레르기아토피질환 운동치료,도수치료
	윤여준	화,목▲,금	월,금	뇌질환재활(외상성뇌손상,뇌졸중의식장애파킨슨병), 상부지장애경추치료,도수치료
치과	박원희	월~목, 토(2,4,5주)	수	심미보철 임플란트, 생활동맥염, 치아미백 턱관절질환 치주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화,목,금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주질환
직업환경 의학과	장태원	토(1~4주)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형두	토(1~4주)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은		목	유전성 암, 유전성 질환, 유전성 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일반			수술 마취전 처치
통증클리닉	심재항	수, 금	월	급성통증치료,만성통증치료,요통,관절통,암성통증,신경병증성통증,대상포진후신경통,척추통증
	박형준	화, 목, 토(2주)	수, 목	퇴행성관절통,근골격계질환(어깨,무릎,목,허리),요통,관절통,신경병증성통증,암성통증,척추통증(디스크,협착증),두통,대상포진후신경통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이혜순	금,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섬유근통, 만성통증, 쇼그렌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강직척추염, 통풍, 골관절염, 베체트병, 쇼그렌, 염증성근염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루푸스, 경피증, 베체트병, 피부근염, 섬유근통, 쇼그렌
발걸음 클리닉	장성호	목		근골격계재활,소아재활,스포츠의학,뇌신경재활,도수치료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목	근골격계재활,심장재활,호흡기재활,알레르기아토피질환 운동치료,도수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척추내시경,최소침습수술,척추내시경),신경병증성척추외상(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08:00

말의 문을 열고
소통의 길을 내는 사람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오승한 언어재활사

한양대학교병원 언어치료실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재활을 도와주는 언어재활사가 있습니다.
오전 8시, 오승한 언어재활사는 오늘 만날 환자들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단계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환자들 중에는 어린아이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유독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이곳에서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꼭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